

## 소망교도소 개청 15주년 “신앙 기반 회복적 교정으로”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 5일 개최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명성 교회 원로목사)가 설립한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5일부터 7일까지 ‘세상의 빛: 신앙 기반 회복적 교정(Light of the World: Faith-based Restorative Corrections)’을 주제로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를 진행한다. 5일 서울 강

동구 글로리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개회예배, 개회식, 학술대회, 폐회식 순서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상의 빛 신앙 기반 회복적 교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민영교도소, 회복적 정의 교회 프로그램, 회복적 교

정 운동을 다루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교도소 선교 단체 대표 및 전문가들이 경험과 통찰을 나누며, 미래 전망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대회사를 전한 김삼환 목사(재)아가페 이사장은 “재단법인 아가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교정의 패러다임을 회복과 회복으로 전환시키는 사명을 감

당하고자 한다. 신앙에 기반한 민영 교정 모델은 단순한 제도적 실험을 넘어,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 비전이 더욱 선명해지고, 각국의 교정 사역에 새로운 길이 열리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은 “아가페 정신으로 진정한 교회, 신앙을 통한 교회, 새로운 한국형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소망교도소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연한 의원(국민의미래 국회의원, 선교사 4대 후손)은 “오늘날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소망교도소가 그 동안 보여준 15년간의 혁신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소망교도소의 걸어온 길은 놀라운 성과”라며, 행사 진행을 위해 현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종수 목사(NCCK 총무)는 “소망교도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 참석자 단체 사진. ©장지동 기자



김삼환 목사가 대회사를 전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려대학교)은 “이번 행사는 신앙이 교정의 현장에서 어떤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살아 있는 증거를 통해 세계가 함께 공감하는 자리”라며 “교정의 목적은 회복이며, 교화의 힘은 사랑에 있다. 소망교도소가 법과 신앙, 제도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적 비영리 조직들이 세계 변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수 목사(NCCK 총무)는 “소망교도

소의 시작은 새로운 형태의 교정 시설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자유이다. 곧 회개와 용서 그리고 새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며 “소망교도소의 사역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일깨우는 거룩한 부르심이다. 소망교도소의 다음 15년이 더 깊은 사랑과 더 넓은 회복의 역사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K-팝에서 K-교도소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로버트 맥크리 교수(뉴욕 시립대학교 형사사법학)는 “소망은 비록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인간 안에 내재한 선함을 믿는 기관이다. 그곳에서 수용자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는다. 행정책임자와 직원, 지원봉사자들은 수용자들을 실제로 돌보고 배려한다. 그 결과 범죄 없는 미래와 친사회적 선택이 더 가까워지고, 더 현실적인 선택지로 열린다”고 전했다.

또한 “소망의 범지율은 0이 아니지만, 유사 교정시설의 절반 미만이다. 이는 매우 중대한 결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며 “소망은 윤리로 충만하고 예술과 음악, 그리고 기학으로 가득하며, 영성이 스며든 기관이다. 그러나 소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 K-교도소는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그저 허황된 꿈에 그쳤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기부와 지원봉사, 기도 그리고 쉼 없는 헌신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아가페재단은 교정 활동에 독창적이고도 중대한 기여를 해왔다. 학술대회가 그 소식을 널리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바이런 존슨 교수(베일리대 학교 법학)와 하워드 제어 전문가(회복적사법개혁자)가 영상을 통해 축하했다.

이어진 감사패 증정식에서는 앤드류 콜리 대표(국제교도협회(PFI) 대표)가 김삼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삼환 목사는 “이 상은 한국교회 모든 분들의 기도와 후원, 사랑과 헌신의 결과이다. 여러분들께 이 상을 바치겠다”고 전했다.

행사는 최창익 장로(재)아가페 사무총장의 광고, 권태진 목사(재)아가페 이사, 예장 합신 증경총회장의 폐회기도 순서로 개회식은 마무리됐다. 장지동 기자

## ‘1인 시위’ 이재훈 목사 “약물 낙태는 국가적 자살행위”

5일 국회 앞에서 경고… “태아는 헌법상 생명 주체”

한국교회 지도자들, ‘낙태 자유화 및 약물 낙태 도입 반대’ 1인 시위 국회 앞서 향후 4개월간 릴레이 시위, 김운성·한기재 목사 동참 예정 이재훈 목사 “진정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생명 보호 의무 포함”

한국교회 주요 지도자들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포함된 ‘약물 낙태 허용’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가 첫 주자로 나서 “생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약물 낙태는 국가적 자살 행위”라고

찰리 커크의 멘토 목사,  
다민족 기도회서 메시지 》3면

C.S. 루이스·이종성 박사의  
기쁨의 신학에 대한 고찰 》4면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목사는 또한 “유럽과 북미에서 약물 낙태가 초래한 부작용이 이미 심각하게 드러났다”며 “통계적으로 약물 낙태 후 70%가 추가 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보고도 있다. 단순하고 안전하다는 제약업체의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이재훈 목사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약물 낙태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간담회 당시 배석해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를 브리핑한 제양규 한동대학교 교수는 “약물 낙태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을 줄 수 있다”며 “2018년과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낙태 여성의 9%가 약물 낙태를 시도했으며, 이 중 70%가 추가 수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물 낙태의 위험성을 정은경 장관에게 전달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재훈 목사는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측이 내세우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논리

자기결정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은 생명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는 결정권”이라며 “태아 6주에 심장박동이 나타나고 22주에는 단독 생존이 가능한데, 이를 단순한 세포로 치부해 낙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진정한 자기결정권에는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포함돼 있다”며 “낙태 대신 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목사는 이번 운동의 배경을 물은 질문에 “약물 낙태 합법화 움직임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알리지 않으면 통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침묵하면 생명경시 풍조가 사회 전반에 퍼질 것”이라며 “태아가 사회의 약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현재 입법 공백 상태인 헌법상 낙태죄 관련 법안 발의 상황을 전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조례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해당 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며 “대략 태아



이재훈 목사가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노형구 기자

10주까지 낙태 허용을 골자로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태아 역시 존중받아야 할 생명”이라며 “모든 생명이 보호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전 여성도 낙태하기 위해 임신하지 않는다”며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진정으로 지켜려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적 출산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장화 한국임양선교회 대표는 “교회는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그치지 않고, 태어난 아이를 품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며 “임양가족과 교회가 연대해 지켜진 생명을 함께 양육하는 문화가 확산할 때, 위기 임산부들이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향후 4개월간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전국 교회에 생명존중운동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재훈 목사는 “이 일은 단순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신앙적 책임의 표현”이라며 “한국교회가 시대적 양심으로 일어나 태아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2025-2026  
경원 병문의 해  
VISIT GANGWON YEAR

철원  
Cheorwon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1억년, 신비의 세계가  
눈앞에서 펼쳐진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협곡  
다채로운 바위 순대계곡 절벽과 허공 사이를 걷는 아찔한 잔도

횃불전망대

변화의 중심  
다시 뛰는 철원

unesco  
한탄강자연공원  
철원군

# “성경 가치와 신앙 자유 위해 연합” 대광기총 창립

## 창립총회 및 예배 드려… 초대 총회장에 심하보 목사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이하 대광기총)가 최근 서울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에서 총회 및 예배를 드리고 창립했다.

대광기총은 창립선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한국교회는 민족의 역사와 함께하며 복음을 증거해 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반기독교적 정체와 제도적 억압, 이단과 사이비 세력의 학살, 그리고 세속 주의의 물결은 교회의 신앙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광기총의 사명으로 아래 다섯 가지를 천명했다.

1. 우리는 반기독교적 정체와 제도적 위협에 대하여 성경적 가치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연합합니다.
2.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 세력의 침투를 막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3. 우리는 전국 시도총연합회의 행사와 사업을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여 한국교회의 역동성을 강화합니다.
4. 우리는 복음 전파와 선교적 사명을 위해 헌신하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다시 서도록 힘씁니다.
5. 우리는 사회와 국가 앞에 공적 책임을 다하며,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의 가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섭니다.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광기총)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광기총

대광기총은 “우리는 이 연합이 단순한 조직의 결성아님을 고백한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지키고 복음의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신앙적 서약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약약”이라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불들고, 우리는 어둠 속에 빛을 비주며, 길등과 분열의 시대에 화해와 연합의 증인 될 것”을 선언했다.

한편, 이날 정영진 목사(부산기총 대표회장)의 인도로 드려진 창립예배에서 유화종 목사(강원기총 사무총장)가 기도했고, 이대형 목사(부산기총 사무총장)의 성경봉독 후 대광기총의 초대 총회장을 맡게 된 심하보 목사(서울기총 대표회장)가 마태복음 5장 13~16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예배는 김정태 목사(충남기총 총회장) 유화종 목사(강원기총 사무총장) 김진영 기자

## 기독교한국루터회, 새 총회장 원종호 목사 취임

기독교한국루터회가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교단의 쇄신을 다짐했다. 교단은 최근 서울 옥수동 루터교회에서 제9대 총회장 아취임식을 열고 원종호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공식 추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임 집행부와 교단 관계자, 원로 목회자 등이 참석해 루터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그러나 최근

까지 이어진 내홍의 여파로 일부 목회자들이 불참하면서, 이번 아취임식은 절반의 행사로 치러졌다.

취임식에서 원종호 신임 총회장은 루터 교단의 현 상황을 “도약과 자멸의 기로”로 규정하며 근본적인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참 종으로, 교회의 선포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회복돼야 한다”며 “새 집행부와 실행위원회들이 함께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직전 총회장 김은섭 목사는 후임에게 교단기와 십자가 목걸이를 전달하며 “앞으로 4년간 루터회와 복음을 굳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총회장은 이임사에서 “새 집행부에 무거운 짐을 남

긴 것 같아 송구하지만, 새로운 리더십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단을 세우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교단의 원로들도 교단 분열의 상처를 언급하며 화해를 요청했다. 55년간 루터교 목회자로 활동해온 김해철 원로목사는 설교에서 “루터회는 작은 교단이지만 자랑스러워할 만한 교단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내홍으로 상처를 주고 받아 왔다.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분열을 치유하는 새로운 루터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 발언은 지난해 총회장 징계자 해별 논란 이후 지속된 교단 내 갈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아취임식에는 상대 측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아, 교단 화합이라는 과제가 새 집행부에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기독교한국루터회는 지난 제55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교단 갈등 해결을 위한 화해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화해위원회에서는 김동진 부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인 화해위원회가 꾸려졌으며, 오는 7일에는 양측 인사가 참석하는 ‘제43 대회모임’이 예정돼 있다.

김동진 위원장은 “화해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위원회의 대전제”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첫 만남이 될 것”이라



원종호 목사 ©기독일보DB

고 설명했다. 총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던 반대 측 관계자 역시 “교단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종호 총회장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이해와 용납, 양보의 여유가 생길 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며 “화합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뷰:프레임



퍼펙트 슬림뷰 :  
베젤리스 설계

클리어 엣지뷰 :  
논슬리콘 디자인

멀티플 화이트뷰 :  
다양한 화이트 톤 소재

LX Z:IN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창호 부문 최다 1위(18회)  
LX Z:IN 창호

## “이진숙 전 위원장의 영등포경찰서장 등 고발 지지”

### 방미워저지모임, 기자회견 갖고 수사 촉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저지를 위한 국민 모임(공동대표 주요셉, 이하 방미워저지모임)이 5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경찰 고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방미워저지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서울남부지검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찰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선거기간이 아님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쓰우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갑을 채운 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하던 장면은 세계 토픽감이었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 대다수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제 명 대재정권의 민낯이 백일하에 폭로되었다”고 했다.

방미워저지모임은 이 전 위원장이 고발한 대상들에 대해 “그들은 지난 10월 29일 체포 이후 1차, 2차 조사를 통해 충분히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 고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방미워저지모임

사건에 대해 조사했음에도 또다시 3차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체포한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고발인과 변호인은 조서 열람 시간과 영상녹화 CD 작성 시간, 경찰서 왕복 시간을 포함해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허비했던 것”이라고 했다.

방미워저지모임은 “우리는 거듭 이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축출 사건이 법을 악용한 명백한 정치탄압이 정치폭력임을 천명한다”며 “만약 이제 명 정권이 이 진숙 탄압뿐 아니라, 구속시킨 손현보 목사와 같은 종교인 탄압을 계속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국민들에 대한 겁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강력한 국민적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결국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번 고발에 대한 당국의 자체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 의료인 단체 ‘힐링핸즈’, 제6회 생명영화상영회 개최

일본 영화 ‘플랜75’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생명윤리와  
안락사 문제 깊이 있게 다룬

예비 의료인과 현직 의료인들로 구성된 단체 ‘힐링핸즈’가 오는 11월 8일 서울시 청 서소문별관 4층에서 제6회 생명영화상영회를 연다.

영화 ‘플랜75’는 “만약 75세가 되면 국가가 안락사를 권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한다. 작품은 국가가 고령자에게 안락사를 지원하는 가상의 정책 ‘플랜75’를 중심으로, 78세 여성, 75세 남성, 정책 담당 공무원, 콜센터 직원, 유품을 정리하는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인물의 삶을 따라가며 죽음과 생명, 존엄의 의미를 묻

는다. 이 영화는 고령화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과 사회의 책임, 그리고 제도화된 죽음이 불러오는 윤리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상영이 끝난 후에는 관객들이 영화가 제기한 생명윤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은 의학박사이자 생명윤리 석사인 김수정 박사가 진행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힐링핸즈는 이번 상영회를 통해 생명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의료 현장에서의 윤리의식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힐링핸즈는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생명영화상영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 첫 상영회에서는 ‘마이 시스터즈 키퍼(My Sister's Keeper)’를 통해 인간복제와 치료하고 있다.

장자동 기자



# 찰리 커크의 멘토 목사, 다민족 기도회서 “부흥, 기도의 토양 위에 피어나”

## 2025 다민족연합기도회 Multi Ethnic Prayer Gathering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코네티컷 플라이어스 항에 도착한지 약 100년이 지나지 않아, 초기 정착자들은 종교에 잠자 무관심해졌다. 성직자들조차 여우 사냥 경마, 플랜테이션 주인들의 초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청교도주의는 점차 유럽으로부터 들어온 계몽주의와 이신론으로 대체되었고, 교회 출석은 사교모임이 되었다.

1703년 존 웨슬리가 세상에 나온 그해, 코네티컷주 이스트 원자에서도 한 아이가 태어났다.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 아이는 훗날 제1차 대각성운동을 이끈 조나단 애드워즈였다.

애드워즈는 17세에 예일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Solomon Stoddard)를 이어 노스 헴프턴 교회(Northampton Church)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부임 약 8년 후, 그가 설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참된 길’(Justification by Faith Alone, 1734)을 통해 300명 이상이 회심하고 마을 전체로 영적 각성이 퍼져나갔다.

다민족기도운동에 따르면, 제1차 대각성운동이 미국 독립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으며, 미국은 이 기독교적 정신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이다. 대각성운동의 불씨는 거기서 끼지지 않았다.

그 영향은 제2차 대각성운동(1787~1875)으로 이어졌고, 이어 건조더미 기도모임(1806)과 평신도 정오 기도운동(Laymen-centered Noon Prayer Movement)을 일으켰다.

또한 제3차 대각성운동(D. L. Moody, 1871~1899)과 학생선교자원운동(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1888~1940)이 주로 거리 부흥운동(1906)으로 이어지며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다. 이후 4차 대각성운동(빌리 그레厄, 1949)과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1952), 예수 운동(1970) 등으로 그 부흥의 불씨는 계속 이어졌다.

지난 2011년 11월 11일 데이빗 앤드레이드 목사를 중심으로 파사데나의 로즈볼 경기장에서 다민족 연합 기도 대회가 열린 아래 매년 다민족이 연합해 교회의 회개와 미국의 부흥을 위해 매년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다민족연합기도회는 “회개, 부흥, 회복”을 주제로, 11월 2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많은 다민족 영적 지도자들과 기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됐다.

GMI, 뉴비기닝 연합찬양팀, 찰리 커크의 티닝포인트USA의 Faith 의장인 랍 맥코이(Rob McCoy) 목사, 스티븐 데이비스(Steven Davis) 목사, 뉴비기닝교회(New Beginning Church)의 길버트 자라고자(Gilbert Zaragoza) 목사, 하베스트 타임 인터내셔널(Harvest Time International)의 마누엘 산틸라노(Manuel Santillano) 목사, 엘머 잭슨(Elmer Jackson) 목사, 로버트 울프(Robert Wolff) 랍비, 폰저 바이(Fengzhe Bai 중국인교회) 목사, 조나스 물요(Jonas Muljo)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지도자들이 각 기도회 순서에 참여해 도전을 전하고 연합의 물꼬를 뚫었다.

제1부 경배와 환영에서는 GMI와 뉴비기닝 연합 찬양팀이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각각 헐리 포에버와 Holy CUAN GRANDE ES EL(꾸안 그란데 에스 엘 How Great Art Thou 스페인어 찬양)를 불렀다.

올해도 양각나팔(Shofar)을 부는 세레모니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고, 한기홍 목사의 환영 인사와 티닝 포인트USA 랍 맥코이(Rob McCoy) 목사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랍 맥코이 목사는 “부흥을 통해 문화가 바뀌고, 대학이 세워지고, 교육 시스템이 세워졌다”며, “미국 초기 리더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자들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초기에 아이들은 신체적 운동을 위하여 했고 하나님의 도덕법은 암법, 법률에 다 적혀 있었고, 아이들은 그 도덕법을 배우며 자랐고, 정치 리더들은 그 법을 알아야 했으나, 지금은 누가 신체적 운동을 외울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손현보 목사의 구속 및 교회 압수 수색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에 대해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와 상관 없이 복음만 전한다는 태도는 영지주의의 한 형태”라며, “복음이라는 말 뒤에 숨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침묵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서 1960년 교회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고,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문제에 침묵하는 교회에 실망해 교회를 떠나고, 동양의 종교에 빠져들고, 캘리포니아에서 마약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던 때,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다민족 기도회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기도하는 교계 지도자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다민족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외국인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전했던 척 스미스 목사의 예수 운동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갈보리교회의 뿌리이기도 한 예수 운동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예수 운동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개종자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고 지적하며 “어떻게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면서 캘리포니아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후 캘리포니아를 뒤흔든 영적 기후, 재정적 부채, 가정의 파괴와 트랜스젠더, 낙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그는 “찰리 커크는 젊은 세대들에게 외쳤다. 그들은 가장 중독에 강하고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은 세대고 가장 자살을 많이하는 세대”라며, “사랑받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이 선교사”라고 말했다. “찰리 커크가 있는 곳에 수많은 시위 세력들도 있었다. 찰리가 죽음 당하기 전에 정말 수많은 하나님을 반응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곳에 있었다”며, 이것을 “제자도의 부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최근 미국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며, 아칸소대학 1

말했다.

2부 행사로 진행된 기도회는 총 5개 파트로 구성됐다. 회개를 위해 신승훈 목사,

부흥과 회복을 위해 데이비드 디아즈 목사(공동대회장),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김민아 대표(밸드업 코리아), 미국의 리더십을 위해 고태형 목사(공동대회장), 기도가 필요한 나라들을 위해 볼프강 코바체크(Wolfgang Kovacek, Pray California)가 각각 기도하고 각 소수서로 다양한 한인 및 다민족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했다.

신승훈 목사는 “미국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국가였다”며, “신앙을 위해 신대륙으로 건너와 자신들의 집을 짓기 전,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먼저 세운 자들의 나라였다”고 말했다.

“미국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나라였다. 신앙을 기반으로 나라를 세웠다. 공적 문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적었고 수정헌법 1조에는 의회는 종교를 제정하는 법률이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고 명시했다. 성경적 가치에 기초해 사회를 세웠다.”

그는 “미국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금주법을 만들고 여성과 어린이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적 윤리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었으나, 오늘날 인권, 다양성 이란 이름으로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동성애를 가르치

며, 학생인권법 학생들이 부모의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민아 대표(밸드업 코리아 대표)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진리가 공격 받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놀랍게도 다음 세대가 깨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진리와 거짓의 전쟁 한 가운데 서 있다. 이 전쟁은 교실에서, 하나님을 지우기 위한 한 문장에서 시작되어, 유튜브 알고리즘, 틱톡, 넷플릭스의 장면 속에서, 거짓이 찬양받고 진리가 조롱받는 미디어 속에서 이어진다. 또한 법과 제도 안에서도 이어진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다시 한번 군대를 일으키며, 잠든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신다.”

이날 기도회는 이창남 목사(공동준비 위원장)의 감사 및 알림,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번 기도회는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가 주관하고, 은혜한인교회, JAMA, OC교협, 남가주교협, 성시화운동본부, 청교도신양회복운동에서 공동으로 주최했다. 남가주 여러 교회들, 미주복음방송 및 크리스천 언론사, 각 지역 교회 협의회, 목사회, 여성목사회가 후원했다.

LA-주디 한, 토마스 맹 기자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Everywhere you live and work

LS

전력 공급 및 제어 시스템

해저 전력ケ이블

## 교회 안 다니는 미국인 4명 중 3명은 과거 다닌 경험

### 목데연, 약 10년 전 라이브웨이리서치 조사 결과 소개

매주 ‘넘버즈(numbers)’라는 이름으로 교회 관련 주요 통계자료를 소개하고 있는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가 미국에서 약 10년 전 있었던 라이브웨이리서치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의(Unchurched Report, 2016)’이라는 조사의 주요 결과를 4일 소개했다.

목데연은 “비록 조사 시점은 오래되었으나 오늘 교회가 여전히 부딪히고 있는 주제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상태에 있는가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넘버즈에서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결과를 보면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인식하는 이들 중 63%는 ‘비실천적비독실 신앙’ 범주에 속했다. 언처치드(Unchurched,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 3명 중 2명 가까이가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하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룹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언처치드 4명 중 3명(75%)은 과거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닌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언처치드 그룹이 처음부터 교회 밖에만 있었던 집단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고 목데연은 덧붙였다.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언처치드 10명 중 7명은 ‘모든 사

람의 삶에는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삶에서 더 깊은 목적을 찾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둔 이들도 57%에 달했다.

목데연은 “이와 같은 데이터는 언처치드가 교회 혹은 종교 외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향한 스스로의 탐색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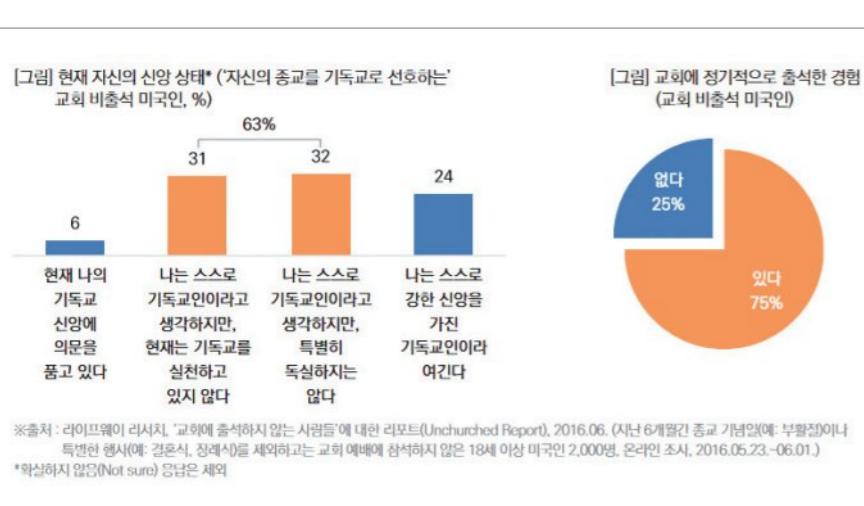
종교에 대한 대화 요청을 받았을 때, 언처치드의 절반가량(47%)은 ‘자유롭게 토론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31%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듣기는 한다’고 답했다. 이에 목데연은 “전체적으로 수용적 태도가 회피보다는 우세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언처치드가 반응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신앙적 대화에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할 가능성을 물은 결과, 언처치드 3명 중 1명꼴인 33%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목데연은 “이는 교회의 꾸준한 관계 맺기와 초대가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다만, 응답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7%는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해, 교회 출석에 대한 거부감과 무관심을 동시에 드러냈다.

김진영 기자



\*출처: 라이브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시작 2개월간 종교 가입여부: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에 같은 교회에 출석한 사람, 출석하지 않은 사람: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6.22~06.01.)

\*확실하지 않은(Not sure) 응답은 제외

# C.S. 루이스와 이종성 박사의 기쁨의 신학에 대한 고찰

## 온신학회, 11주년 기념 제8차 연구위원회 연구모임 진행

온신학회(회장 최태영)가 최근 서울 광성교회에서 온신학 11주년 기념 제8차 연구위원회 연구모임을 가졌다. 이날 △안윤기 교수(장신대)가 'C.S. 루이스 기쁨 개념의 온신학적 수용' △황기훈 박사(장신대)가 '이종성 신학에서 본 기쁨의 신학: 인간론에서 교회론으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기쁨의 신학, 통전적 비전 제시해야'

안윤기 교수는 "루이스에게 있어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쾌락이나 일시적인 행복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에 새겨진 초월적 갈망의 표징으로 이해된다"며 "루이스는 어린 시절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 기쁨이 세상에서 완전히 충족될 수 없으면 서도 인간을 끊임없이 하늘로 이끄는 '향수 같은 그리움'을 깨달았다. 기쁨은 이 세상과 초월적 실재를 연결하는 징표이며, 인간이 궁극적인 실재를 직접 소유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체험으로 설명된다"고 했다.

또한, 루이스의 갈망 논증에 대해 "엄밀한 연역적 논증보다는 최선 설명 추론의 성격을 지닌다"며 "이 논증의 핵심은 인간 내부의 자연적 갈망이 그것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실제적 대상의 존재를 지시한다는 자연 목적론적 전제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험주의자들에게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인간 본성에 대한 이성적 직관을 인정하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증"이라며 "특히 이 논증이 가리키는 궁극적 대상을 '미지의 x'로 남겨두면서도 그 초월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점은 신학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그는 "루이스의 기쁨 개념을 몰트만의



온신학회 11주년 기념 제8차 연구위원회 연구모임 참석자 기념 사진. ©온신학회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수는 기쁨 신학이 다층적인 성격을 지닌다"며 "루이스의 기쁨은 개인적이고 내향적이며 초월적 성격을 지닌 반면, 몰트만은 기쁨을 공동체적이고 정치적이며 현실 변혁적인 성격으로 본다. 이 두 접근법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루이스의 기쁨 경험이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되더라도 그

극적으로 사회적 변혁과 우주적 회복을 포함한다. 반면에 몰트만의 해방적 기쁨은 개인의 내적 변화 없이는 진정한 사회변혁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한국교회에 중요한 합의를 제공한다. 현재 한국 교회는 개인주의적 신앙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루이스의 영적 통찰과 몰트만의

사회적 실천 의식을 균형 있게 수용할 필

요성이 있다"며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이웃 사랑과 사회 정의 실현으로 확장될 때 온전해진다"고 했다.

아울러 "현대인들에게 루이스의 기쁨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과 기술 문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깊어지는 실존적 공허감은 루이스가 말한 달랠 길 없는 갈망"의 현대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며 "기쁨의 신학이 개인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동시에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는 통전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는 현대인의 마음 깊숙이 자리한 신비로운 기쁨의 갈망에 진정한 응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성 박사의 기쁨 신학, 개인 회복과 공동체 실천

황기훈 박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조직 신학자 이종성 박사(1922-2011)의 신학에

서 기쁨의 개념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 황 박사는 "이종성 박사에게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죄와 절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실천하는 신학적 기쁨"이라고 했다. 이어 "이종성 박사의 기쁨 신학은 인간론과 교회론의 통합적 관점을 반영한다"며 "그의 기쁨의 신학은 개인의 실존적 절망에서 출발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완성된다. 즉, 기쁨은 개인의 구속과 회복을 넘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신앙의 실천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신학이 개인의 회복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기독교적 실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으로서 신앙을 재조명하며, 현대 교회와 사회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 한국피스메이커, 'AI 시대의 관계 회복' 주제로 제23회 피스포럼 및 감사예배 개최

### 인공지능이 바꾸는 시대 속, 인간관계의 본질과 복음적 화해의 길을 모색한다

사단법인 한국피스메이커(이사장 이철) 까지 남서울교회(담임 화종부 목사)에서 및 감사예배를 개최한다. 목사가 오는 11월 10일 오후 4시부터 9시 '제23회 피스메이커의 날 기념 피스포럼' 이번 포럼 및 예배는 급속한 인공지능

**동아제약**

**동아보감**

#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증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생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의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일반의약품 60포(23g x 10포 x 6)

동아제약 경옥고

자양강장 · 병증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생년기 장애 · 권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알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AI)의 기술 발전이 인간의 정체성과 관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신학적 윤리적으로 조망하며, 복음적 화해와 관계 회복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피스포럼의 주제는 "인공지능(AI) 시대, 관계를 잇다"이다. 한국피스메이커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기술의 편리함 속에서도 인간 관계의 본질을 잊지 않고, 복음의 원리에 따라 화해와 평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부 피스포럼은 여삼열 목사(한국피스메이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다. 황선태 교수(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윤형철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김성신 교수(숭실대 AI융합학부), 김기원 대표(Logos AI Labs)가 패널로 참여해 AI의 윤리적 쟁점과 인간 관계의 신학적 의미를 함께 탐구한다. 이들은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복음적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1부 피스포럼은 여삼열 목사(한국피스메이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다. 황선태

교수(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윤형철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김성신 교수(숭실대 AI융합학부), 김기원 대표(Logos AI Labs)가 패널로 참여해 AI의 윤리적 쟁점과 인간 관계의 신학적 의미를 함께 탐구한다. 이들은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복음적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피스메이커가 자

체 개발한 '갈등분석훈련 지원 AI 모델'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 시스템은 복음적 화해 원리에 기반해 갈등을 진단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돋는 도구로, AI 기술을 평화 사역에 접목한 첫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포럼 이후에는 감사예배가 이어진다. 예배에서는 강남교회 고문산 담임목사가 미가 4장 3~4절을 본문으로 "나무 아래 평화"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 화평교회 김정민 담임목사가 기도로 참여한다. 피스메이커 홍보대사인 벨레브양상성이 특주로 예배를 섬기며 감사와 친양의 시간을 이끈다. 장지동 기자

## CCC 청소년 사역팀, 내년 1월 '2026 SHINE 비전캠프' 개최



올해 1월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열렸던 '2025 SHINE 비전캠프' ©CCC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CCC 청소년 사역팀 '샤인(SHINE)'이 내년 1월 22~24일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2026 SHINE 비전캠프'를 개최한다. 총 1,000명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CCC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전공 멘토링, 직업 탐방, 선택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비전을 모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체성과 가치

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주요 강사로는 이종화 목사(세운교회), 허용석 목사(모동이돌교회)가 나선다.

CCC 청소년 사역팀 '샤인(SHINE)'은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소중한 기회인 SHINE 비전캠프에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과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 제8영도교회, 고신대에 발전기금 전달

제8영도교회(담임목사 문지환)는 최근 종교개혁기념주일을 맞아 고신대학교(총장 이정기)에 발전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과 신앙 공동체 사역을 위한 발전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예배에는 고신대 신학과 바아론 교수가 초청돼 '오직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예배소서 2장 8~10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배 교수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

능하다"고 덧붙이며 은혜 중심의 신앙을 강조했다.

문지환 목사는 기금전달식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 공동체와 교육기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신대학교가 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인재를 길러내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정기 총장은 "학교는 주신 마음을 귀히 여겨 신앙과 학문이 조화를 이루는 기독 지성인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발전기금 전달 후 기념촬영. ©고신대

는 것"이라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성도의 모든 선한 행위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가

## 보령시, '연탄은행 재개식' 열고 3만장 나눔 시작

50가구에 사랑의 연탄 전달...  
“이웃의 겨울을 따뜻하게”

충남 보령시가 올겨울을 맞아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보령시는 최근 보령선한이웃 주관으로 김동일 보령시장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탄은행 재개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탄 나눔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박세영 보령선한이웃 대표(목사)는 "매년 추운 날씨에도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나눔의 운기가 보령 곳곳으로 확산되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은정을 나누어주신 후원자와 봉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

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 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동 기자

충남 보령시 '연탄은행 재개식' 기념촬영. ©보령시

# 한국VOM “북한 사역 재정비” 촉구하며 성경 3만2천 권 발송



순교자의 소리의 복음 중심 사역의 일환으로, 탈북민들이 존 로스 성경 히브리서 2장을 현대어로 번역하고 있다. ©한국VOM

한국순교자의소리(대표 현숙 폴리, 한 국VOM)가 최근 북한 사역의 ‘재정비’를 촉구하며 전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존 로스 누가복음 성경 3만2천 권을 발송 했다고 최근 전했다.

이 단체는 매년 평균 3만 권의 성경을 북한에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우편 발송은 “북한 및 탈북민 사역을 복음 중심으로 다시 세우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현숙 폴리 대표는 “많은 교회가 탈북 민을 돋는 데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지만, 진정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탈북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는 일”이라며, “25년간의 북한 사역 경험을 통해 한국 교회가 복음 중심 사역으로 전환하도록 돋고자 한다”고 말 했다.

한국VOM은 이번 성경 발송과 함께

전국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공지했다.

훈련은 ▲대전 사무실(11월 13일) ▲서울 사무실(11월 27일) ▲부산 사무실(12월 4일)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까지 진행되며, 참가 희망자는 전화(02-2065-0703)로 사전 등록해야 한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번 훈련은 단순 한 강의가 아니라 실습 중심으로, 목회자들이 탈북민과 함께 성경 개정 작업에

참여하며 복음 사역의 실제를 체험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송된 누가복음은 19세기 말 선교사 존 로스가 번역한 최초의 한글 신약성경을 현대어로 개정한 일부다. 현숙 폴리 대표는 “존 로스 성경은 평안도 방언으로 번역돼 탈북민이 어여직 간각을 가장 잘 이해한다”며 “남한 목회자들과 탈북민이 함께 문법적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VOM은 2026년까지 탈북민들이 현대어로 개정한 4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출간하고, 2027년에는 존 로스 신약성경 전체를 완간할 계획이다.

현숙 폴리 대표는 “존 로스 성경은 조선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통로였다”며, “이 번역본은 남북한 모든 기독교인이 함께 읽어야 할 성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남한 목회자들이 탈북민과 함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양육하는 목회자와 양육받는 탈북민 모두가 다시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돋겠다”고 말했다.

한국VOM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및 탈북민 사역 관련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훈련 참여 문의도 받고 있다. 노형구 기자

## 미얀마 기독교인, 교회 파괴와 성직자 살해 속 점점 심화되는 박해

군부, 기독교인과 소수종교에 대한 탄압 강화…

“국제사회, 신앙자유 수호 위해 즉각 행동해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미얀마 군부가 기독교인과 기타 소수종교 공동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긴급한 대응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기독교 인권단체 크리스천 솔리더리티 월드와이드(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이하 CSW)는 최근 발표를 통해 “군사정권의 종교 박해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CSW와 종교자유연대(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Network, FoRB)에 따르면,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의도적으로 220개 이상의 교회를 파괴하고, 공습·포격·고문 등을 통해 최소 85명의 성직자를 살해했다. 특히 기독교인이 다수 거주하는 친(Chin) 주가 군부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수많은 교회와 마을이 젠데리모로 변했다.

CSW는 이를 ‘초토화 전략(scorched-earth strategy)’이라고 규정하며, 군부가 예배당을 파괴할 뿐 아니라 약탈하고, 인근에 지뢰를 설치하며, 심지어 교회

를 임시 병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정 교회 모임이 금지됐으며, 신자들은 경찰에 예배 일정과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CT는 박해는 기독교인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교 사원, 이슬람 사원, 그리고 로힝야 무슬림 공동체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군부는 2024년 2월 제정된 ‘징병법’을 이용해 로힝야족을 강제로 징집하고 전투 지역의 ‘인간 방패’로 내몰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

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집단학살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로힝야족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차별은 재난 구호 영역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3월 미얀마 중부를 강타한 규모 7.7의 지진 이후, 만달레이 종교행정청은 교회와 이슬람 사원은 ‘원래의 설계와 크기’로만 재건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제한은 불교 사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 많은 기독교 예배당이 폐허로 남거나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미얀마 군부 지도자 민 아웅 휴라잉(Min Aung Hlaing)은 자신을 ‘불교 수호자’로 내세우며,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외세의 사주를 받은 국가의 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CSW는 이 같은 선전 전이 군부의 ‘포컷(Four Cuts)’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역 공동체의 식량·의료·구호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CSW 창립자이자 회장인 마빈 토마스(Mervyn Thomas)는 “지금 미얀마의 기독교인과 소수종교 공동체가 겪는 상황은 국제사회의 긴급한 행동을 절실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부는 민간인과 종교 시설을 겨냥한 무차별 공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징병법은 박해와 내전을 부추기는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종교 소수자들이 예배당을 재건하거나 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하는 것을 가로막는 차별적 행정명령도 폐지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군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군용 항공우 공급을 중단하고, 인도적 지원은 군부를 거치지 않고 시민단체와 신앙 기반 단체를 통해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대표는 또한 “전 세계 교회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바로 그 때, 미얀마의 신자들은 여전히 혹독한 억압 아래 있다”며 “교회와 성직자를 겨냥한 군부의 행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신앙 자체에 대한 공격임을 국제사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SW는 끝으로 각국 정부가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 원칙에 따라 미얀마 군부의 종교 박해를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필리핀에서 제기된 유사 소송과 같은 국제적 사법 노력이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책임을 강화를 목표로 한다.

CSW는 “군부가 계속해서 교회와 목회자를 표적으로 삼는다면, 이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한국VOM은 2026년까지 탈북민들이

현대어로 개정한 4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출간하고, 2027년에는 존 로스 신약성경 전체를 완간할 계획이다.

현숙 폴리 대표는 “존 로스 성경은 조선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통로였다”며, “이 번역본은 남북한 모든 기

독교인이 함께 읽어야 할 성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남한 목회자들이 탈북민과 함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양육하는 목회자와 양육받는 탈북민 모두가 다시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돋겠다”고 말했다.

한국VOM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북

한 및 탈북민 사역 관련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훈련 참여 문의도 받고 있다.

노형구 기자

## 인도 대법원, ‘강제 개종’ 허위 혐의 벗겨… 기독교인들 3년 만에 무죄 판결

우타르프라데시주 목회자와 병원 직원 등 무고 확인…

“형사법, 무고한 이들 괴롭히는 도구로 전락해선 안 돼”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 대법원이 허위 개종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든 형사 절차를 전면 무효화했다고 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인도 내 강제 개종 법이 소수 종교인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나온 중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피해자들에게 3년 만에 법적 정의가 실현됐다.

지난 10월 17일, 대법원 판사 J.B. 파르 디왈리와 마노즈 미스라가 공동으로 작성한 158쪽 분량의 판결문은, 2022년 4월 이후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강제 개종 혐의’로 기소된 목회자 비자이 마시(Vijay Masih) 목사, 브로드웰 기독교 병원 직원 샘 히긴보트 농업기술·과학대학(SHUATS) 관계자 등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내려진 모든 형사 사건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법이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기소를 낭발하는 것은 정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2022년부터 등록된 사건번호 224/2022, 47/2023, 54/2023, 55/2023, 60/2023 등 모든 사건과 관련 절차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4년간 부당한 혐의에 맞서 싸워온 목회자들과 신자들에게 법적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다. 사건은 2022년 4월 14일 ‘세족목요일(Maundy Thursday)’에 시작됐다. 헌두 극우단체 비슈와 헌두 파리샤드(VHP) 소속 인사들이 파테푸르(Patlipur) 지역의 복음교회 예배당을 포위하고 경찰을 불러, 90명의 헌두교인이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마시 목사를 비롯해 35명의 신자를 체포했으며, 일부는 100일 넘게 구금되었다.

대법원은 당시의 제1보고서(FIR)가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VHP 간부로, 기존 법률에 따라 개종 사건의 고발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이후 등록된 4건의 추가 고발서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발자들의 진술이 ‘복사된 듯 동일한 문구’로 작성되어 있었고, 서류의 전자 날짜도 거의 동일한 시각으로 찍혀 있어 “기계적으로 조작된 증거”라고

대법원은 또한 수사당국의 자료와 증거 수집 방식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5조의 정신에 비추어, 현행 ‘강제 개종 금지법’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웨슬리 목사는 “이 사건은 인도에서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체계적으로 묵살되는 상징적 사례”라며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즉 예배하고 전파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SM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 광역접근성 우수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경주시

# 교회 성장의 기본 골격, 이것이 본질이다

[기획보도]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공급형 양육 프로그램에서 '자기계발형 제자훈련 2.0 온전함'으로①

교회 성장의 기본 골격, '제자훈련'으로 교계 주목,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담임 김준섭 목사)

공급형 양육 프로그램에서 '자기계발형 제자훈련'으로:  
멈춘 교회가 아닌 '성장하는 성도'를 위하여  
현대 교회의 위기, 해법은 '말씀을 통한 성장의 기회'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은 많은 교회가 현장 예배 회복과 공동체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 약화 비율은 33%로, 정기 참여자(18%)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신앙 이탈이 두드러지는 현실에서, 단순한 출석 독려만으로는 근본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최근 통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본질적 방향을 다시 제시한다.

새신자 조사(2021)에서 새신자가 믿음을 갖게 된 데 가장 도움이 된 요인 1위는 '성경공부'(20%)로, '설교'(15%)나 '기도 응답'(15%)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또한,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말씀과 제자훈련 등의 활동이 활발한 교회일수록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역 회복률(현금 99%, 소그룹 98%, 말씀공부 92% 등)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말씀과 관련된 제자훈련과 관련된 교

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어스틴 한인장로교회(담임 김준섭)는 '제자훈련 2.0 온전함' 모델을 도입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한 제자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초 다지기: 일대일 양육에서 제자 훈련 도입까지

김준섭 목사는 부임 당시 교회가 체계적 양육 프로그램의 공백과 말씀과 삶을 연계할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고 분석한 후, 가장 먼저 '두란노 일대일 제자양육'(16주)을 도입해 리더십부터 훈련했다. 이 과정에서 약 110명의 인도자가 배출되며, 교회 내 말씀 훈련의 토양이 마련됐다. 다음 단계로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근간인 '제자훈련 1.0(고故) 육한흠 목사 체계)을 교역자·장로가 먼저 약 9개 월(36주) 이수한 뒤 평신도 1기를 운영했으며, 이 역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좋은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다. 좋은 출발이었다.

◆업그레이드: 제자훈련 2.0 '온전함'으로의 전환

제자훈련 1.0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현대 성도의 언어와 환경에 맞춘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교회는 '제자훈련 2.0(온전함)'으로 전환했다. 김 목사는 CAL Seminar를 재이수하며 2.0의 취지와 구조를 점검했고, 현장 적용을 위한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제자훈련반 제1기반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제자훈련 장로반 수료의 현장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제1기 제자훈련 수료자 간증의 시간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운영 설계를 직접 행했다. 2.0은 1.0의 핵심 가치를 잇되 세계관, 정서(감정), 인간 관계, 언어생활, 일상의 세대 계승 등을 보강해 오늘의 과제를 다룬다. 조직 신학 파트(2권)에는 교회론을 자체 보강해 말씀·교화·사명의 축을 선명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김준섭 담임목사는 "교회의 희망은 프로그램이나 건물이 아닌 말씀으로 변화된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자훈련으로

(성도들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영적 투자입니다."

김상범 훈련담당 목사: 제자훈련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꼼꼼히 행하고 있는 김 목사는 "제자훈련은 주 교재 외에도 통독, 독서보고, 적용 등 제출해야 할 과제물이 많습니다 (웃음). 현장의 교역자가 이 모든 것을 일일이 점검하고 피드백하

는데, 이 과정에서 교역자도 함께 배우고 성도와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이 상호작용 자체가 곧 훈련이며 성장의 산실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32주의 '몰입형' 트랙

훈련은 총 32주로,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삶의 전 영역에서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돋는다. 성경 통독·암송, 큐티, 주일설교 적용, 권장도서(약 20권 중 12권) 독서보고 등 주간 과제가 주어진다. 훈련의 목적과 강도를 감안해, 사전 인터뷰로 시간·현신(순종)에 대한 각오를 확인한다. 현장 적용 강화를 위해 최소 1박 2일 미션 트립을 의무화, 배운 내용을 실제 사역 조건에서 검증한다.

어스틴 한인장로교회는 팬데믹 시기에도 안정적 공동체 유지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소그룹·성경공부 활성화가 높을수록 사역 회복률이 높다는 2025년 통계와 궤를 같이한다.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을 넘어, 신앙 약화와 청년 이탈을 줄이는 '예방 백신'이다. 사역 전반을 떠받치는 백신(골격)으로 기능하며, 교회의 최종 목표는 '자식 축적'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사역의 현장이다. 수료자는 목장(소그룹) 리더로 세워져 말씀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일으킨다. 교회는 수료율, 목장 리더 배출 수, 미션 트립 참여율·사후 적용률 등 정량 지표로 과정과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주디 한 기자

## 비영리단체 설립 및 AI도구 활용한 Grant 나레이션 작성 무료 공개 강의



비영리단체 설립 및 AI도구를 활용한 Grant 나레이션 작성 공개 무료 강의가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ICMM,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와 Global Vision University 주관으로 11월 8일 오후 1시 오랜지 카운티 OC 강의실에서 현장과 Zoom으로 진행된다.

특별히 이번 강의는 비영리 단체 설립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IRS로부터 Tax Exempt 승인 받음으로 도네이션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득세 신고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비영리 단체가 신청할 수 있

는 그랜트를 소개하고 그랜트 신청을 위한 나레이션 작성은 AI도구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할 예정이다.

강의는 한인 커뮤니티 및 교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준비됐으며 비영리 단체 설립과 운영, 그랜트 신청 등에 관심이 있는 목사, 선교사, 신학생, 전문인, 학교, 비즈니스 선교, 비영리단체 등 모든 분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다.

강의를 담당하는 제임스 구(Dr. James Koo) 박사는 학교 행정 전문가로서 여러 신학교 및 경영 대학교에서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미디어 및 정보통신, 플랫폼 선교 및 목회, 실천신학, 경영 및 회계학 교수이며 대학원에서 교회행정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와 그레이스 글로벌 비전스쿨(Grace Global Vision School) 대표로 교육을 통한 교육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으며 글로벌비전 교회를 통해서 플랫폼 선교와 목회 사역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구 교수는 남가주 한인 목사회 학술분과 위원장으로 목회자 교육 및 학술 진흥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매년 2-3회에 걸쳐 커뮤니티를 위해서 비영리 단체 설립, 운영 및 회계, 세금 보고관련한 무료 강의를 주관하였다.

김민선 기자

## 오픈뱅크-오픈청지기재단, 저소득층 노년층 위한 커뮤니티 키친 및 직업 개발 지원



저소득층 지원 사업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위한 종합 커뮤니티 키친 및 직업 개발 프로그램에도 동참한다.

오픈뱅크(행장 오상교)와 오픈청지기재단(이사장 최화섭)은 지난달 30 일 이스트 LA 지역에서 활동 중인 Eastmont Community Center(이하 ECC)를 직접 방문해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위한 ECC 커뮤니티 키친 및 직업 개발 프로그램 'Empowerment Through Food'에 지원금 2만달러를 전달했다.

음식을 통해 새롭게 커뮤니티를 세운다는 의미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저소득층들이 겪는 식량 불안정, 실업, 사회적 고립, 가족 지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요리

교육, 취업 지원, 커뮤니티 활동, 금융 교육을 통해 소외계층이 필수 기술을 습득함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완비된 커뮤니티 키친에서 다언어 구사가 가능한 요리 강사 및 취업 코디네이터들이 직접 실습 위주의 요리 워크샵과 직업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은 이들이 요식업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은 지난 달에 저소득층에게 주택 개보수용 공구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메이커스 허브(Makers Hub)에 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에 ECC의 프로그램에도 지원 저소득층을 향한 직업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폭을 늘려가고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비영리단체 Eastmont Community Center(ECC)를 방문한 오픈뱅크의 오상고 행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제이 박 전무(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 ECC의 직원들과 지원금을 전달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단체 측 제공

앞으로 여러 정부관련 지원 사업에도 동참해 저소득층의 재정적 안정을 찾는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김민선 기자

##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 푸른씨앗

김성주

▣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종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검색하세요!

# “한국교회, 미전도종족 선교로 전환점 모색... IMB와 협력 강화도 기대”

## 제23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서 기자회견 열려

전 세계에는 기독교인 비율이 2% 미만이고, 자국어 성경이 없으며, 종교문화·정치·정경·자본·자원 등 다양한 이유로 복음의 접근성이 떨어져 스스로 교회 개척 및 자립 선교가 불가능한 미전도종족(UPG, Unreached People Group) 및 비접촉 미전도종족(UUPG,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이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

미국 남침례교 해외선교부(IMB)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종족 그룹은 12,372개, 전 세계 인구는 약 81억 4,200만 명(2024년 기준)이며, 이 중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미전도종족(UPG)은 7,272개, 약 45억 5,000만 명, UPG 중에서도 교회개척 전략이 진행되지 않는 UUPG는 3,104개, 약 2억 9,000만 명이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한국교회가 복음을 듣지 못한 UPG, 특히 UUPG 선교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건강한 선교 방향과 전략을 재정립하기 위해 'UPG & UUPG 선교'(마태복음 24:14)라는 주제로 11월 3~6일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제23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한선지포)을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는 전 세계에서 UPG 선교 통계와 사례, 전략 부문에서 가장 탁월한 전문성과 자원을 가진 IMB 내 핵심 리더십과 미전도종족 사역 전문가 등 5명이 주요 강사로 초청됐다.

한선지포 둘째 날인 4일 오후 예루살렘동 2층 북카페 암바암마에서는 IMB 총재 폴 치트우드(Paul Chitwood) 박사(이하 치트우드 총재)와 KWMA 강대홍 사무총장(이하 강사무총장)과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진행은 정용구 KWMA 협동총무 및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장, 통역은 에블린 리IMB 선교사가 봉사했다.

-이번에 방문한 IMB 주요 리더십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달라.

치트우드 총재=IMB 부총재인 제이콥 보스(Jacob Boss)는 남아시아, 곧 인도 선교 현장에 오래 개셨고, 나중에 유럽 담당자로 섭니다. 부총장으로 된 지 몇 달 되었다.

그렉 맨(Greg Mann)은 IMB 아시아태평양을 담당하는 지역 책임자로, 34개국 약 1,000명의 선교사를 담당한다. 또 자로드 데이비스(Jarod Davis) 세계화전략 책임자, 밴스 워튼(Vance Worten) 아시아태평양 선교연구원 송요셉 IMB 한국 대표이자 서울 담당 등이 있다.

-한국교회와 IMB와의 동반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될지 함께 연구

떻게 이뤄질 수 있나.

강 사무총장=이제 한국교회 선교가 좀 더 건강하고 전략적으로 이뤄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290~300만 이주민을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지 다루고 액션플랜으로 10기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올해 UPG, UUPG를 정한 이유는, (복음에) 열린 지역과 닫힌 지역을 구분하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닫힌 지역이나 전방개척지역으로 방향을 잡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교회개척도 열린 지역이 아니라 닫힌 지역에서 해야 하는데, 한국교회의 교회개척을 하려는 그 마음과, 닫힌 지역에 가서 열심히 하는 (IMB 전략) 결합하여 한국교회를 좀 설득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IMB가 가르쳐주는 방향대로 기술적 선교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그러한 방식으로 선교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명을 받으면, 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받아 훈련받고 나가는 사례도 있지만, 은혜받아서 그냥 나간 사례도 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IMB처럼 체계적인 훈련이 부족하기도 하고, (많은 선교사가) 훈련받지 못하고 현장에 갔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은 하다면 하는 기질이 있다는 것이다. 서양처럼 체계적으로 나가는 것은 부족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미전도종족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한국 선교사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좀 위험할 수 있고, 추천할 만한 것은 아니다. 절차를 밟아 UPG, UUPG에 접근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많이 부족해서 아쉽다고 생각한다.

-IMB는 한국교회와 어떤 협력을 원하나.

치트우드 총재=그전부터 IMB와 가장 많이 협력하는 단체가 한국 침례교단이고, 한국 복음주의교단들과도 같이 협력하여 일하던 중에 이번에 오게 됐다.

한국의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인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 마음이 저희 IMB와 같다고 생각하여 같이 일하고 싶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 저희가 리서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사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또 IMB가 하는 일을 리서치를 통해 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될지 함께 연구



강대홍 KWMA 사무총장(왼쪽)과 폴 치트우드 IMB 총재(오른쪽)가 기자회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강대홍 KWMA 사무총장 “미전도종족 선교로 한국선교 더욱 건강해져야”

“한국선교, 조직과 체계는 부족하지만 돌파할 수 있는 힘 있다고 믿어”

폴 치트우드 IMB 총재, 지상대명령 완수 위해 파트너십 거듭 강조

“오지 리서치하는 ‘Project 3000’에 열정적인 한국의 젊은이 동참 기대”

하고 알고 싶다

저희가 지금 밀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프로젝트 3000(Project 3000)'이다. 젊은이 300명이 정말 힘든 지역에 가서 리서치하고 탐험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사역을 하는 것으로, 결코 쉬운 업무는 아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갈 젊은이들을 찾고 있다. 열정적인 한국의 젊은 세대가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한다.

-보스 IMB 부총재가 (이전 강의에서) 현장에서 함께하는 파트너십에 대해 강조 했다. UPG, UUPG 선교에서 파송 중심의 선교가 중요하지, 이들과의 동역 관계가 중요한지 묻고 싶다.

치트우드 총재=저희가 봄 담고 있는 남침례교단 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역을 감당할 수 없다. 지상대명령을 완수하려면 전 세계교회가 함께해야 한다. 최초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의 사례에서 우리는 파트너십과 선교 사역의 모범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인 성경적 모델은 '파트너십 모델'이다.

그리고 UPG, UUPG 선교에서 파송 중심 선교, 동역 관계 중심 선교가 둘 다 중요하다. IMB 선교사의 92%가 UPG 사역

을 하는데, IMB 선교사들이 어디에 살고 봉사하든 혼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회들, 현지에서 파송된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한다.

저희가 작년에도 인도네시아에 76개

국 나라의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모여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여 선교할지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기준의 협약, 네트워크, 단체들과의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을 모색했다.

IMB는 탄탄한 연구팀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IMB 역사가 180년이 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겸손해 온 전략이 있고, 우리가 개발한 것들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각 나라로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고자 노력한다.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많이 배웠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든 해답이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진 않기 때문에 파트너가 필요하다.

-IMB가 다른 곳보다 선교지 이양이 빠르다고 들었다. 출구 전략에서 조언해 주고 싶은 점은?

치트우드 총재=IMB가 좋은 출구 전략

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경쟁에서 빠르게 앞서 나갈 수 있고, 지역 파트너나 지역 지도자들이 전심전력을 다해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많은 한국인이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IMB의 출구 전략은 오랜 세월 걸쳐 많은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이다. 저희도 과거의 선교 모델은 종종 의존적인 모델이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원과 돈 등 모든 것이 외부에서 나와야 했다. 현지인들이 한국인이나 미국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할 때, 우리는 현지 교회의 성장과 확장을 볼 기회를 제한받게 된다.

저희는 먼저 출구 전략을 보고 선교를 시작한다. 처음에 저희가 돈을 투자하고, 저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현지인에 두고, 현지인들이 그곳에서 도모하게 한다. IMB는 돈으로는 투자를 안 한다. 현지인을 훈련해 주고, 훈련을 위해 모든 것을 지원해 주지만, 돈으로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현지인들이) 저희에게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자신들이 이 자비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나올 때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한국의 협력자들에게 배운 것 중 하나는, 선교적 맥락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하는 것의 위험성이다. 미국적인 교회 형식이나 예배 형식을 현지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미국적 형식을 (선교 현장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활동에서 우리 문화를 제거하려고 노력했다. 우리의 예배 형식으로 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현지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

강 사무총장=한국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면 현지 목사를 조정해 월급을 주고 일을 하게 한다. 일종의 고용 개념이다. 그렇게 현지 목사를 고용하여 목회하고, 선교사들은 5~6개 교회를 관리하는 것을 선교로 이해한다.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선교사가 (현지인을 세우지 않고) 자신이 목회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만, 열린 지역이든 닫힌 지역이든 현지인을 조정해 월급을 주고 일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IMB뿐 아니라 WEC, 인터서브, OM도 선교사들에게는 생활비, 사역비를 주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월급을 안 준다.

-IMB 선교에 구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치트우드 총재=Project 3000에서 현재 한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 중이다. 한국인들이 저희 팀에 와서 오지 를 탐험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GMP(Global Missionary Partner)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으로, 한국 교회가 젊은 선교사나 모든 연령대의 선교사들을 해외 IMB 팀에 파송하는 것이다. 그들이 저희 팀의 일원이 되면, 교회 또는 파송 기관에서 파트너와 함께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은?

치트우드 총재=내일(5일) 강의에서 전 할 내용인데, 하나님은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선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책에 선교의 뜻이 흐르고 있으며,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종족,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청지기가 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 선교의 청지기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것을 통해 특정한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선교에 동참해야 하고 선교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지희 기자

초연결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 항만 서비스 기관  
**BPA** | 부산항만공사  
BUSAN PORT AUTHORITY

**20+1**  
BPA  
부산항만공사 창립 21주년

**21번째의 도전**  
바다의 가능성을 우리 모두의 가치로 만들어온 부산항만공사 21년,  
새로이 도약할 100년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세계로 힘차게 뻗어갑니다.

최첨단 스마트 항만 구축으로  
원활·자동화 항만 실현  
친환경 디지털 항만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복합 재개발과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로  
부산항의 국제적 위상 확장

**시작합니다**

# 트럼프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존재적 위협 직면”

## ‘특별우려국’ 재지정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이 존재적 위협(existential threat)에 처해 있다”며 미국 국무부에 해당 국가를 ‘특별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 명단에 다시 포함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학살당하고 있다”며 “이제 미국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들이 이 대규모 학살의 주범”이라며 “나이지리아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기독교인이나 다른 어떤 집단이 지금 나이지리아에서처럼 학살당하고 있을 때, 반드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 지역 국가로, 최근 수년간 북동부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와 중부 지역의 무장 목축민 공격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피난길에 오른 상태다.

국제 기독교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살해되는 기독교인 중 절반 이상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다.

미국 내 기독교 인권단체들은 “국제사회가 나이지리아 기독교인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나이지리아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런 잔혹 행위가 벌어지는 동안 방관할 수 없다”며 “전 세계 기독교인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준비돼 있으며, 행동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화당 소속 라일리 무어 하원의원(R-WV)과 톰 콜 하원 세출위원회에게 “이 사안을 즉시 조사하고 보고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였던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독일보 DB

최근 들어 미 의회 내 보수 의원들은 나이지리아를 다시 CPC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국제기독연대(ICC)’는 트럼프의 발표를 환영하며 “이번 조치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의 고통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숀 라이트 ICC 대표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나이지리아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결정이 다른 세계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폭력과 박해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변화와 구호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 프랭클린 그래함, 수단 엘파세르 학살 규탄… “급진 이슬람의 민낯”

미국 내 주(州)별 신앙 자유 환경을 비교한 새로 운 보고서가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나파법률연구소(Napa Legal Institute)는 최근 ‘2025 신앙과 자유 지수(Faith and Freedom Index)’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각 주가 종교 기반 비영리단체의 자유를 얼마나 보호하는지를 0~100점 척도로 평가했다. 평가는 △종교의 자유 점수와 △규제의 자유 점수 두 항목을 종합해 산출됐다.

나파법률연구소 콘텐츠 디렉터 프랭크 데비토(Frank DeVito) 선임 고문은 “이 지수는 암법자들을 예에 어떤 부분에서 보호를 강화하거나 유해한 법을 폐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라고 밝혔다.

종교 자유 점수는 △주 헌법 내 종교 자유 보장 조항 존재 여부 △종교 자유 회복법(RFRA) 제정 여부 △비영리 단체의 공공 프로그램 운영 시 종교 자유 보장 정도 △신앙 기반 고용주의 권리 △비상사태 시 종교활동 보호 여부 △블레인 수정조항(Blaine Amendment)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됐다.

평가 결과, 앨라배마(86%)와 캔자스(79%)가 종교 자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미시시피(67%), 조지아(67%), 플로리다(63%)가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미시간(22%), 버몬트(23%), 델라웨어(25%), 위스콘신(26%), 메릴랜드(27%)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나파법률연구소는 미시간과 위스콘신을 “신앙 기반 비영리단체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며 심지어 적대적인 주”로 지목했다.

데비토는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종교 자유 침해 사례들은 강력한 주 차원의 보호가 없을 경우 일반 시민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이미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법정 다툼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기독일보 DB

규제 자유 점수에서는 인디애나(82%)와 몬태나(80%)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아이오와(79%), 애리조나(77%), 텍사스와 와이오밍(이상 76%)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일리노이(40%), 미시간(45%), 매사추세츠(48%), 사우스캐러올라인(49%), 워싱턴(49%)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 항목은 △비영리 종교단체 법 △주요 법인 활동의 사전 통지 및 동의 요건 △이사 윤리 기준 △기부 등록 및 감사 규정 △법인세·판매세·재산세 면제 여부 등 여러 요소로 평가됐다.

종합 점수에서 앨라배마(72%)가 1위를 차지했으며, 캔자스(69%), 인디애나(68%), 텍사스(65%), 미시시피(63%)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앨라배마에 대해 “헌법상 종교 자유를 강력히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활동에 정부가 부담을 줄 경우 ‘엄격심사(strict scrutiny)’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연방 501(c)(3) 단체에는 자동으로 주 법인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미시간(31%), 위스콘신(35%), 매사추세츠(37%), 일리노이·메릴랜드·웨스트버지니아(각 38%)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특히 미시간의 경우 “종교 단체의 주 정부 자금 수령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블레인 수정조항”과 “공공시설 및 고용과 관련된 차별금지법에 종교 단체에 대한 실질적 예외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기자

## 인도, 기독교 박해 여전… 선교사 폭행·기독교인 경제적 보이콧 심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가 여전히 심각한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에 따르면 인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로, 공산국가인 중국과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힌두 극단주의 세력의 폭력과 차별이 여전히 기독교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인도에서는 두 건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첫 번째 사건은 선교사들이 탄 버스가 힌두교도들에 의해 습격당한 일이다.

지난 10월 23일(현지시간) 선교사들이 지역 주민의 초청으로 주타나(Juthana) 마을로 향하던 중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현장 영상에는 선교사들의 비명이 담겨 있으며, 기해자들은 선교사들이 “돈을 주며 개종을 시도하고 힌두 신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세계기독연대(CSW)는 “경찰이 초기에 제대로 개입하지 않았고, 결국 8명의 경찰이 직무대만으

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CSW 창립자 마빈 토마스(Mervyn Thomas)는 “이번 폭력 사태는 평화로운 종교 소수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불관용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는 정의 구현과 종교 소수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사건은 인도 남부의 한 어촌 마을에서 발생했다. 기독교인 주민들이 마을 여신 신전을 위한 기금 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힌두교 이웃들에 의해 사화·경제적 보이콧을 당하고 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기독교인 약 100가구가 공동 어장 출입 금지, 물품 구매 거부, 사회 행사 참여 제한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들은 기본적인 생활 활동조차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지 한 기독교인 여성은 “집 바로 옆 사람과 대화만 해도 별금을 물게 된다. 가게에서도 물건



인도 지도 ©mapswire

을 팔지 않아 일상생활이 너무 어렵다”며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마을에서 이제는 이방인 추급을 받고 있어 너무 슬프다”고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비힌두교도는 신전 건립에 기여할 의무가 없지만, 지역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이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해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으나, 힌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미경 기자

##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캐나다 무역통계 발표 지연

### ‘주요 데이터 제공 못받아 향후 몇 개월 간 발표에 지장’

캐나다 통계청은 2025년 9월의 캐나다 국제무역 통계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유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지장 때문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국제 상품 교역과 국제 용역 부문의 통계는 원래 11월 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발표 날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의 대미 수출량 통계 발표는 미국 인구조사국(USCB) 자료를 근거

로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미 연방 정부의 부분 폐쇄로 인해 USCB의 주요 업무가 정지되었고, 주요 데이터가 아직도 캐나다 통계청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통계청은 9월의 월간 상품교역량 통계 발표를 연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용역의 월간 교류 통계 발표도 마찬가지로 연기한다. 이 역시 완전한 상품 교역량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캐나다 통계청은 캐나다의 올 해 3분기 국제수

자 결제액과 국내총생산(GDP)의 발표는 11월 27일과 2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 날짜에 출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때까지도 9월 대미 무역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월간 수출량의 특별 추산액을 데이터 모델을 통해 추출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캐나다 통계청은 앞으로 몇 달 동안의 통계 발표도 미국 정부의 셧다운 지속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8~2019년에도 미국 연방정부의 35일간의 셧다운으로 당시 캐나다 국제 무역통계 발표가 5개월 연속 지연된 적이 있다. 차미례 기자

# 힘센 충남! 대한민국을 부탁해!

대한민국 탄소중립경제를 이제, 힘센 충남이 신바람나는 북극곰의 춤처럼 신바람나게 이끌어 갑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총청남도



ANYWHERE ... ✈ ... IS POSSIBLE

당신만의  
특별한 곳은  
어디인가요?

ANYWHERE IS POSSIBLE



대한항공  
Korean Air



KOREAN AIR

# 통일부 조직 개편, 남북 교류 기능 복원됐지만 북한인권 부서 축소

## 인권인도실 폐지로 대북 인권정책 후퇴 우려 확산

윤석열 정부 시절 축소됐던 통일부의 남북 교류협력 기능이 다시 복원됐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던 '인권인도실'이 폐지되면서, 북한인권 정책의 퇴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공포시행된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남북 교류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통일 관련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북한 인권 부서의 폐지

는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편에 따라 기존의 '남북관계관리단'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세분화됐다. 남북 회담을 전담할 '남북회담본부'가 부활했으며, 남북 교류협력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이 새로 만들어졌다. 또한 개성공단 재개와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 경제협력 관련 업무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이 맡게 됐다.

이번 조직은 남북 교류 재활성화의 의

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대북 인권 기능의 약화라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실장급으로 격상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던 '인권인도실'은 이번 개편에서 폐지됐다. 대신 해당 기능은 새로 구성된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이관됐다. '남북자대책팀'도 사회문화협력국 산하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권인도실의 폐지는 단순한 조직 조정이 아니라 북한 인권정책의 상징적 후퇴"라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와 협

력해 다뤄왔던 전담 부서가 사라지면서, 향후 정부의 인권 외교와 국제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원칙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장을 밝혀왔지만,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그 기조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질적인 인권 전담 조직의 부재는 정책 추진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개편에서는 이제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대처'를 추진할 조직도 새롭게 설치됐다. 장관 직속

한반도정책경정단

이 신설되어

국민과 시

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국립통일교육원은 단순히 조직 개편의 문제를 넘어, 북한 통일교육의 범위를 확장해 '국립평화통일 인권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후퇴한 민주교육원'으로 개편됐다.

이번 개편으로 통일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총 정원은 기존 533명에서 600명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축된 인원 81명 중 67명이 복원된 셈이다. 본부 조직은 기존 3실 3국(1대변인 포함) 5관 27과 6팀에서 3실 3국(1대변인 포함) 2단 4관 33과 6팀으로 확대됐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 개편이 남북관계

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 기능의 축소는 단순히 조직 개편의 문제를 넘어,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도적 사안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시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교류협력 강화와 함께 인권 정책의 균형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인권 전담 조직의 복원과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국 기자

## 트럼프 행정부, 북한 사이버 사기·자금세탁 격냥한 추가 대북제재 단행

"핵 개발 자금줄 차단 위해 불법 수익원 봉쇄"… 해커·IT노동자 네트워크 등 10곳 제재 명단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사기와 자금 세탁 활동을 정조준한 추가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동결제국(OFAC)은 4일(현지 시간)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2곳을 새롭게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북한이 해킹, 가상화폐 철도, IT 노동자 파견 사기 등을 통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재무부는 "이들 불법 행위가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금 세탁망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라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이 후원하는 해커들이 정권의 핵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며 "재무부는 이들의 불법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배후 세력과 협력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 은행과 장국 철과 호종선이 포함됐다. 두 사람은 이미 제재 대상인 '1인용은행'을 대신해 약 53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포함한 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부는 이 자금 중 일부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나 북한 IT 노동자 사기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IT 기업인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주식회사'도 명단에 올랐다. 이 회사는 중국 선양과 단둥 등 최소 두 곳에 IT 노동자 파견단을 운영하며 외화벌이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대표 유용수 역시 함께 제재 대상에 지정됐다.

이와 함께 북한 금융기관 '류정신용은행'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 금융기관을 대리하고 있는 호영철, 한홍길, 정성혁, 채전범, 리진혁 등 디声道 명의 인물이 기존 제재망을 우회한 혐의로 추가 제재를 받았다. 이번 조직은 북한의 자금 조달 네트워크 전반을 겨냥한 광범위한 제재로 해석된다.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과 연관된 모든 경제 활동이 금지된다.

지된다. 또한 제재 대상과 거래하거나 협력한 기업이나 개인도 동일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아시아 순방 직후 발표돼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며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뜻을 내비쳤지만, 북한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전날인 3일 북한 산 석탄과 철강을 불법 수출한 7척의 선박에 대해 유엔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따른 제재 조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줄을 다각도로 차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 기조를 재확인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홍은혜 기자

## 기업 파산 급증, 올해 1600건 돌파… "하루 6곳씩 문 닫는다"

중소기업 부도율 14년 만의 최고치… 경기 반등 없으면 구조적 위기 우려

국내 기업들 파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600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6곳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와 고금리, 내수 부진이 겹쳐 기업들의 자금 난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6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44건)보다 222건 증가했다. 9월 한 달 동안만 207개 기업이 법원에 파산 신청했다. 파산은 기업이 자산을 청산하며 경영을 완전히 종료하는 절차로, 회생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과정은 다르다. 통계상 기업 규모는 구분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나 벤처스타트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 파산 증가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이 겪는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할 경우 연말과 내년 초 추가 부도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 특히 자금 회전이 어려운 영세 기업들이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년 상반기 경제 흐름이 중소기업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경기 반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히"하고 강조했다. 이나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한미 관세협상 경제 분야 마무리… 안보 논의 끝나면 서명"

국유재산 매각 재검토·대미 투자 특별법 추진 밝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5일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파트시트(JFS)에 대해 "경제 분야는 사실상 마무리 됐고 안보 논의가 끝나면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작업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구 부총리는 KBS1라디오 '전격시사



라이브'에서 "팩트시트는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로 나뉘나"며 "경제 분야는 거의 끝났고, 안보 부분만 정리되면 함께 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보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관세와 안보를 포함한 조인트 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MOU를 함께 준비 중이며,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공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또한 2000억 달러 규모

의 대미 현금 투자 관련 MOU에 대해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 중이며, 기획재정부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제출돼야 자동차 부문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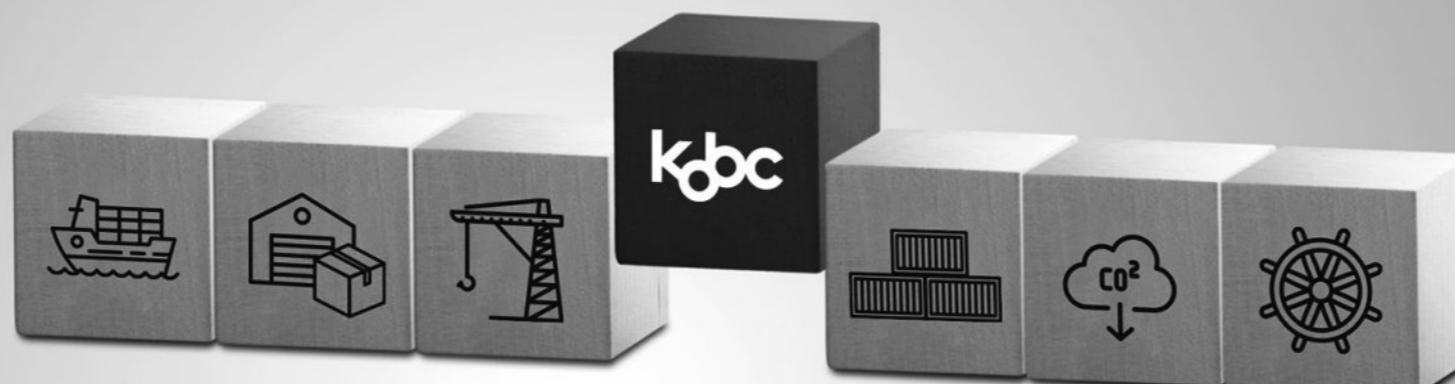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 연구개발(R&D)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미국에서는 조선소를 짓지만, 한국에서는 AI 기반 선박을 개발하는 R&D 센터를 설립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이제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산이 부당하게 매각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투입이 필요하다"며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AI 대전환과 혁신경제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

## 해양산업 맞춤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 초록우산,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최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함께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주배경아동 당사자의 경험과 의견을 법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주배경아동 5명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및 초록우산 김승현 아동옹호본부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주배경아동들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출생등록 ▲체류권 ▲교육권 등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호소했다. 특히 교육권과 관련해 학교 입학 과정의 장벽, 언어 적응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 절차 등 현실적인 문제를 생생히 전했다.

경기 시흥의 이주배경아동 A군(12세)은 “중도 입국 직후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인근 초등학교에서 거부했다”며 “가려던 학교에서 한국어 지원이 어렵다며 입학이 어렵다고 했었다”고 털어놨다.

대구의 이주배경아동 B군(15세)은 서류가 문제가 되어 입학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다. B군은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려 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될 때까지 약 4개월 학교를 가지 못했다”며 “이후에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에는 한국어교실이 없어서 수업 적응이 어려웠다”고 했다.

이러한 이주배경아동의 현실 개선을 위해 김용태 의원은 초록우산과 협력해 같은 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



초록우산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10월 29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실에서 이주배경아동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초록우산

체장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외국인 아동의 현황을 조사·관리하고,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입학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록우산은 해당 개정안이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

별적으로 이뤄지던 외국인 아동 정보 연계 및 다국어 입학 안내를 제도화해 이주 배경아동 교육권을 개선하는 법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초록우산은 개정안 통과와 함께 대상 범위 확대, 법적 실효성 강화 등 우리 제도가 이주배경아동의 실질적 취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현행법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취학 의무 이행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 국적 아동은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아동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은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법안 발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용태 의원에 대해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인증 현관판과 배지를 전달했다. 초록우산은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인증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입법과 정책 개선을 통해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 굿피플, '2025 굿피플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 개최

### 식료품 22억원 규모 지원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이용기)은 최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5 굿피플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굿피플 이영훈 이사장, 이용기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구세군대 한본영 김병운 사령관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조남권 사무총장,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준 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 최경래 장로회장, CJ제일제당 강진희 본부장, CJ제일제당 봉사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봉사단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굿피플은 2012년부터 매년 겨울을 앞두고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식료품과 생필품을 상자에 담아 전하는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를 개최해왔다.

지금까지 총 34만8천박스가 전달됐으며 지원 규모는 누적 325억원에 달한다.

박싱데이는 중세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다음날 소외 이웃에게 생필품을 상자에 담아 나눠 주던 관습에서 유래했다.

굿피플 이영훈 이사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자원봉사자는 '2025 굿피플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

행사에서 소외 이웃에게 전달될 사랑의 희망박스를 직접 포장했다. 또한 CJ제일제당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상자에는 즉석밥, 간편조리식품, 김, 캔

햄, 고추장, 된장, 간장, 굴소스 등 CJ제일제당과 함께 준비한 식료품 16종이 담겼다.

굿피플은 이날 포장된 사랑의 희망박스 1천 개를 포함해 총 2만5천 개를 오는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할 계획이다. 상자에 담긴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22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굿피플과 함께 아름다운 나눔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는 ‘약자 동행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굿피플 이영훈 이사장은 “사랑의 희망박스에는 식료품과 생필품뿐만 아니라 박스를 포장하는 이들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담기게 된다”며 “오늘 함께 전하는 사랑의 희망박스가 시민의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불씨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굿피플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5 굿피플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굿피플

## 굿네이버스, 성우 남도형 나눔대사 위촉

최근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성우 남도형을 나눔대사로 위촉했다.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진행된 위촉식에는 성우 남도형과 전미선 굿네이버스 부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했다.

성우 남도형은 2012년 모금 방송 내레 이션 참여를 계기로 굿네이버스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해외아동 11 결연 후원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13개국 14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3월 경남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한 것을 계기로 굿네이버스 특별회원 모임 '더네이버스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성우 남도형은 좋은 이웃 콘서트에 MC로 참여하는 등 굿네이버스와 함께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데도 앞장섰다. 특히 올해는 유산기부 캠페인 영상에 내레이션



굿네이버스는 성우 남도형(오른쪽)을 나눔대사로 위촉했다. ©굿네이버스

동참할 계획이다. 특유의 따뜻한 목소리로 나눔을 독려하고, 사업 보고를 전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남도형 나눔대사는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는 아동을 비롯해 많은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위해 되돌려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아직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나눔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미선 굿네이버스 부사무총장은 “그동안 굿네이버스 활동에 깊은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남도형 나눔대사에게 감사드린다”며, “남도형 나눔대사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통해 나눔이 만든 좋은 변화의 이야기가 더욱 생생하게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 한국해비타트,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식서 박애장 금장 수상

### 30년간 이어온 주거복지 실천과 인도주의 공로 인정받아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가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을 맞아 적십자 박애장 금장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으며, 이번 수상은 한국해비타트가 지난 30여 년간 국내외에서 이어온 인도주의적 활동과 주거복지 향상 노력에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적십자 박애장’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인명을 구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탁월한 공로를 세운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되는 포상이다. 한국해비타트는 1994년 설립 이후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A world where everyone has a decent place to live)’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주거주약계

총의 자립과 회복을 돋기 위한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특히 독립유공자 후손 625 명 전용용사, 산불 및 재난 피해 이재민, 반지하 침수 위험 가구, 한부모가정, 국내 이주 고려인, 자립준비 청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며, 단순한 주택 지원을 넘어 삶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현재까지 한국해비타트는 29,000세대 이상을 지원했으며, 1세대당 평균 3명으로 계산하면 약 9만 명의 삶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또한 4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이 활동에 동참하며 사랑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켰다.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대한

적십자사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인도주의 기관으로부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최소한의 주거환경 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랑과 나눔의 현장에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왼쪽부터)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에게 시상하고 있다. ©한국해비타트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무서운 말씀: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로빈 슈마허(사진)의 기고글인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무서운 말씀’(3 scary things that Jesus said)을 3일(현지시각) 게재했다.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는 슈마허는 작가로도 활동하면서 많은 책을 냈고 미국 내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누구에게든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무섭다(scary)”라는 단어를 꺼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성품을 묘사하신 유일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이 운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맹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울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9-30).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사람들은 “무섭다”는 단어를 예수님과 연결하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를 두렵게 만들

만한 경고의 말씀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중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자.

## 1. 불타는 가지 (Burned Branches)

오늘날의 포스트모던(postmodern), 탈 진리(post-truth) 시대는 예수님이 복음에서 가르치신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세계관을 따라간다. 하지만 성경 속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참된 진리(True Truth)”가 존재하며, 그분 자신이 바로 그 진리라는 것이다. 다른 것을 따르는 인생은 결국 파멸로 향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니”(요 15:4-5)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절대적 권위를 선포하신다.

C. 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긴 이유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면, 그분은 위대한 도덕 교사이거나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이다. 선택은 오직

하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뿐에 벼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요 15:6) 이것

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와 함께 하라, 그 렇지 않으면 지옥이다.”

요한복음뿐 아니라, 세례 요한도 경고 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마 3:10)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다. “좋아 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느니라”(마 7:19)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영광퀴를 내면 벼름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히 6:7-8) 이 모든 말씀은 한 가지를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끝은 불사름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닌가?

## 2. 가짜 그리스도 (Fake Christs)

요한복음의 또 다른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요 8:24) 이 짧은 말씀에는 두 가지 무서운 진리가 담겨 있다.

첫째, 예수님을 거부한 자의 운명이다. 주석가 윌부드와 불룸은 이렇게 설명 했다.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죽는 이유는 죄를 짊어진 분(요 1:29)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 이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의 유일한 소망을 놓치게 된다.”

둘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이니 라(I am He)”라는 표현의 의미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심을 선언하는 말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가짜 예수’가 너무 많다. 예수님은 이미 경고하셨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마 24:5)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다. 이슬람의 ‘예수’, 이단 종교들의 ‘예수’, 동양 종교 속 ‘예수’, 심지어 사람들 머릿 속에서 만들어낸 ‘자기만의 예수까지’ 모두 구원할 능력이 없는 가짜 예수들이다.

A. W. 토저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를 구원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해 올바른 진리를 믿는다는 뜻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의 말처럼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잘못된 예수를 믿으면, 진짜 구원은 없다.

## 3. 진짜 믿음 (Fake Faith)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무서운 말씀은 필자 자신에게 직접 해당되었던 구절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 이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의 유일한 소망을 놓치게 된다.”

둘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이니 라(I am He)”라는 표현의 의미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심을 선언하는 말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가짜 예수’가 너무 많다. 예수님은 이미 경고하셨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마 24:5)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다.

필자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 예

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사랑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거룩한 애정(Holy Affections)’이 필자에게는 없었다.

최승연 기자

정교도 매튜 미드는 이런 사람을 “거의 그리스도인(The Almost Christian)”이라고 불렀다. 걸으면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마 7:26-27).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받은 자로 착각한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착하게 살았으나 하나님을 나를 받았지겠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집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맷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살전 5:3)

오늘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단 두 부류뿐이다. 심판이 이미 끝난 자 그리고 심판이 아직 앞에 있는 자. 그 사이엔 아무 것도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무서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이자 초대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고후 13:5)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 “인간, 사랑과 분노의 사이에 선 존재”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브라이언 해리스 박사(사진)의 기고글인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본성과 암울적인 성향, 그 두 가지와 씨름한다는 뜻이

다’(To be human means to deal with both our divine and demonic tendencies)를 3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이런 농담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고객 서비스

를 하는 사람이라면, 왜 노야가 방주에 사람 대신 동물만 태웠는지 이해할 것이다.” 배달 실수로 사과 대신 배를 받은 고객이나, 밀크 초콜릿 진저비스킷 대신 다크 초콜릿 버전이 온 것에 분노하는 고객을 상대해 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절로 웃음을 자아낼 것이다.

아주 사소한 일이 우리를 얼마나 웃출하고 비뚤어지게, 그리고 표면 아래에서 끓는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드는지 놀랍지 않은가?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 상황이 바뀌면, 같은 사람이 놀라울 만큼 관대하고, 희생적이며, 인내심 깊고, 따뜻한 격려자가 되기도 한다.

인간 안에 이렇게 극단적인 폭이 존재한다는 사

실에 놀라지 않는가? 솔직히 말하자면, 필자는 내 안에 있는 이 ‘폭’에 가장 실망한다. 필자는 쉽게 소리 지르거나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 안에 이런 상반된 면모가 공존한다는 사실은 늘 나를 당혹스럽게 한다. 많은 상황에서 필자는 진심으로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장을 이해하려 애쓴다. 하지만 어딘가 모를 ‘선’을 넘어가는 순간 필자의 태도는 냉소적으로 굳어지고, 내면의 비판가가 고개를 들며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무심해진다.

어떻게 이런 이해심 깊은 나와 판단적인 내가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둘 다 내 안에 있고, 그 사실이 필자를 괴롭게 한다. 이 문제는 사실 기독교 신학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낯선 주제가 아니다.

성경은 인간의 창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창세기 2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즉,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이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와 필자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미미한 존재다. 그래서 장례식에서는 “흙에서 왔으니 흙

으로 돌아가리라(Dust to dust, ashes to ashes)”라는 말이 낭송된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생기(breath of God)가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었다. 흙이 우리의 비천함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의 존귀함을 상징한다.

창세기 1장 27절은 말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그렇다. 우리는 단지 존재하는 것 이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음받은 놀라운 존재, 창조의 정점이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신성과 타락 사이의 긴장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창세기 1-2장은 인간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지만, 바로 다음 장인 3장은 그 깊은 타락의 심연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다.

창세기 4장은 그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를 전한다.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 세상 최초의 부모는 살인자를 자식으로 둔 부모가 된다. 형제에는 깨지고, 피로 얼룩진 인류의 초상화가 펼쳐진다. 인류의 역사에는 그 이후 끝없는 전쟁의 역사로 이어진다. 이 것은 창세기의 초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성경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편 8편 5절은 말한다: “주께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139편 14절도 이렇게 노래한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께서 나를 두렵고도 놀랍게 지으셨나이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로 빛 어진 존재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지문과 악의 흔적이 함께 있다.

우리는 모순된 존재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부정하고, “우린 다 멋지고 선한 존재야”라고 외친다. 그러나 그 환상이 무너질 때면, 극단적으로 자신을 혐오하며 “우린 아무 가치 없어”라는 절망으로 떨어진다. 때로는 코끼리나 쥐가 인간보다 더 공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관찰은 결국 로마서 3장 23절의 진리를 다시 상기시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많은 사람은 이 말을 불쾌하게 받아들인다. “내가 무슨 악당이라는 거야?”라고 반응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sin)란 최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것

것, 즉 ‘과녁에서 빛나감’을 뜻한다.

즉, “나는 하나님에 만드신 나보다 덜 된 존재”라는 뜻이다. 이런 사실 모든 자기계발서가 말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부족함의 결과인 혼돈과 파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된다. 그분의 십자가는 용서의 자리이자, 새롭게 시작할 초대의 자리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도록 부르신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두렵고도 놀랍게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이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사소한 일로 기분이 상했다면, 한번 물어보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의도하신 나다운 모습을 살고 있는가?” (참고로, 슈퍼마켓에서 누가 새치기했다고, 혹은 주차 자리를 빼앗겼다고 당신이 그토록 화내도록 창조된 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선함을 대표하도록 만드셨다.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진심으로 좋은 질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묵상한다면 인간들까지 태울 수 있는 또 다른 ‘방주’, 즉 진정한 사랑과 자비의 공동체를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최승연 기자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기회를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자본권 예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김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동 저활용 국유자산 관리  
• 노후 국 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기업구조혁신펀드  
• 캠코 선박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 나의 계획이 다 헝클어진 것 같을 때에도

본문: 마태복음 1장 18~20절  
설교: 미국 달라스 리스터트  
교회 담임 박형용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임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리.” (마태복음 1장 18-20절)

오늘 우리가 만나 볼 사람은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는 작은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마리아”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배운 목수기술을 열심히 연마했고, 이제는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마리아와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이제 얼마 뒤면 같은 집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루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는 어떤 성적인 접촉도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더니 급기야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대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차오르는 슬픔과 분노를 다스리고, 큰 숨을 들이마시며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죠(마 1:18-19 참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 게임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 해주기를 마리아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성령으로 임태한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요셉과 마리아가 사용 되도록 선택 받았다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이니 두려워 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요셉은 비록

당황스럽고, 자신이 계획하던 인생의 방향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시는 마리아가 임태한 아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가 자배하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조사에 응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은 만사의 아내인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동네에서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게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태하였다더라.”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마리아가 식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출신의 임박했던 거죠. 아기를 처음 낳아보는 부부였기 때문에 마리아도 당황하고, 요셉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서 깨끗한 장소를 찾아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밖으로 뛰어다니며 장소를 찾아다녔는데, 결국에는 애기 낳을 장소를 찾지 못해서 동물들이 먹고 자는 곳에서 애기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쌔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급하게 애기를 낳아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장소를 찾는데 시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곳에서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손을 꼭 잡아 주고 애기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귀들이 있는 그 우리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출산하는 것을 봄아 하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럽고 비위생적인 그곳에서 아들을 출산하게 해야 했던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사실 요셉이 계획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많은 것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정직하게 살면서 욕심없이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요셉의 꿈이었고 계획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아이를 임태하게 하셨더니,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조라한 짐승의 우리에서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요셉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인생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때때로 신양생활을 하다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예상한 내용과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될 때, 같이 기뻐하고 환호해 주며 그 아이의 출생을 축복하는 그런 소박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 그런데 지금 이곳은 어딘가요? 나귀 같은 동물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더러운 구유에서, 누구도 축하해 주지 않고 누구도 배려해 주지 않는 공간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첫 출산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의 출산을 도와 줄 산파도 구하지 못했고, 아내가 편히 월 침대도 없고, 짐승들이 베고 높은 지푸라기 같은 것에 몸을 기댄채로 냄새가 진동하는 그 비위생적인 곳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 하셨을 때, 비록 나의 행복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어도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을 바란 것도 아닌데

…이런곳에서 내 아내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차가운 짐승의 우리에서 출산을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짐승의 구유에서 아기를 출산한 마리아를 보고 있는 요셉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의문과 질문들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이 서있는 나귀의 구유는, 우리의 상황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말라리아로 잊어버린채 울고 있는 선교사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어느 날 인종차별 시위를 틀어서 가게에 찾아온 야탈꾼들 때문에 부서지고 텅빈 가게를 보고 있는 어느 친사님의 모습일 수도 있죠. 또한 오늘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른 꿈들을 다 버리고 시골로, 섬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서 목회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하루 며칠 양식도 모자라서 매일매일 가족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떤 시골과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은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것은 이게 아닌데... 물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은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것은 이게 아닌데... 물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과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순간과 현실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니 이르시오.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성경이 요셉의 순종으로 인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예수”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꾸었던 소박한 꿈은, 사랑하는 아내의 출산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짐승의 구유에서 출산하는 것은 그에게 커다란 서운함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너와 함께 계신다...”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큰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까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슬픔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현실속에 버려 두신니까?”라고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구유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못했습니다. 원망하기에 마땅한 그 현실도 끝까지 요셉의 인생을 어둠속에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인가 때문이었고, 구유에서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인가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 정도로 힘들지는 몰랐다고 해서, 혹시 주저 앉아 있는가요? 그렇다면 오늘 요셉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94편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어떤 상황속에 계시던 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기자의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AMJIN 삼진제약

발열

인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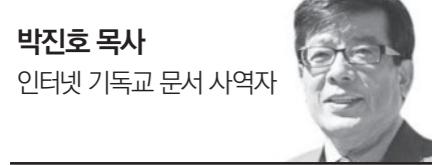
##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sup>®</sup> 쿨다운 정



30정

##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진호 목사  
인터넷 기독교 문서 사역자

[질문] 기독 청년인데도 부끄럽게도 최근까지도 음란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회개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마음에 짐 짐하던 차에 아버지의 새차를 빌려끌었다가 음주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했고 수리비로 꽤 큰 금액이 나왔으나 가해자는 뺑소니를 쳐버렸습니다.

자는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께 벌 받은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저만 벌을 주지 않고 애꿎은 저희 부모님이 피해를 입게 만든 것인지 너무 심하다는 의문과 원망이 계속 듭니다. 빨리 제가 돈을 벌어 서라도 아버지 새차를 사는 데 도와야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서 회개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곤혹스럽습니다.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답변] 가장 먼저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예전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므로 같은 인간인 제 삼자에게 일어난 일을 두고서 하나님의 징계 내지 심판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어떤 죄를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와, 현재 일어난 불행한 사건의 전후 사정을 정확히 잘 아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고 또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비춰서 순전하고도 열린 마음으로 스스로 잘 묵상하고 기도해 가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다르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심판은 불신자가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것이며, 징계는 신자가 잘못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신자를 거룩하게 바꾸어 주려고 일시적으로 벌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영원히 취소되지 않고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도 죽기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을 범하면 자식이 올바른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부모가 사랑의 매를 드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자가 죄를 지을 때

마다 일일이 곧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매번 그러면 당장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신자가 온 몸이 쥐어터져서 성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됩니다. 그분은 신자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아 주십니다. 신자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도 전혀 회개치 않고 있으면, 그것도 당신의 인내의 한계가 될 때, 비로소 사랑의 매를 드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형벌도 반드시 자신이 지었던 죄와 연결된 모습으로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확실히 깨닫고서 그 죄를 고쳐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주십니다. 예컨대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죄를 계속 범하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도 똑같이 말로서 더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지은 죄와 아무 연관이 없는 불행한 사건은 본인이 실수한 것이거나, 다른 이의 훼방이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죄의 형벌은 그 죄를 지은 본인에게 내립니다. 부모가 잘못했다고 자식이, 또 자식이 잘못했다고 부모가 벌을 받는 법은 없습니다. “죄를 지은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의 의는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겔18:20) 물론 자신이 불효의 죄를 범했다면 부모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서 자식으로 불효의 죄를 지었다고 알게 해주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이 잘못되는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 따르면, 형제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형제님이 음란죄를 범한 것이 사실이면 반드시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와 연관되는 방식의 징계를 언젠가는 내릴 것입니다. 그 때 방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한 것을 깨닫고서 사죄하는 기도로 그쳐선 안 됩니다. 그 잘못을 완전히 고쳐서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연약하고 죄의 본성이 살아 있어서 또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빙도 수와 세기는 현저히 줄여 나가야 하고 혹시 다시 죄를 지을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애통해 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 원칙에 따르면, 만약 어떤 연유로든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성장시켜려고 주시는 벌이라서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신에 참예케 하시느니라.”(히12:8,10)

형제님의 경우는 말씀하신 사안 두 가지를 별개로 나눠서 접근 대처해야 합니다. 음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잘못은 지금부터라도 고쳐 나가면 됩니다. 아버지 차의 사고는 어차피 이미 일어난 불행입니다. 그 사건 자체를 되돌릴 수는 절대 없으며 그 일을 두고 후회한들 본인만 손해입니다. 누구도 원망할 문제가 아니며 그렇게 억울해 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해도 본인의 영혼만 폐해집니다. 차는 보험에서 잘 처리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버지가 새 차를 사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와 드리면 됩니다. 아마 아버지가 굳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또 돈을 줘도 안 받을 것이지만, 그런 마음 가짐과 실천하는 태도는 하나님과 아버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벌어진 상황이 황당하고 피해가 커더라도 하나님께 회개 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잘 되라고 회조리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대들면 그야 말로 천벌을 받을 천하의 호로자식입니다. 기도도 안 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하나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 태도야 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이며 정작 그분의 징계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형제님은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건드려 큰 벌을 받았는지 아님에만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당신의 원수였던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형제님은 하나님 그분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형제님에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음란 죄를 완전히 끊느냐, 아버지 차를 빨리 사드리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에 어떤 분이며 어떻게 인간을 주관 통치하시는지부터 정확히 알아 나가야 합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일대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등행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의 심자가 복음에 관해서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 1980년 8월 ‘전두환 위한 기도회’는 연례 국가조찬기도회와 무관



김철영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  
협의회 상임대표

장 초정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는 연례 국가조찬기도회와는 무관하다. 그 기도회는 당시 보안사 군목이었던 문만필 목사(중령 예편, 대한기독교성결교회 소속으로서 서울신대 이사를 지냈다)가 기성 종회장을 역임한 정진경 목사(신촌성결교회)의 도움을 받아 주진한 기도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조찬기도회가 중심이 된 연례 국가조찬기도회는 언제 열렸는가. 그 동안 1980년에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당시 언론보도를 찾아낸 결과 제12회 연례 국가조찬기도회는 ‘서울의 봄’ 때인 1980년 5월 1일 오전 8시 신사호텔에서 열렸다. 그 기도회는 한기원 목사(동신교회)가 기도(설교)를 언론이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임했으며, 민관식 국회의장직무대리, 이영섭 대법원장, 신현화 국무총리 등 3부 요인, 김영삼 신민당 총재, 신두영 감사원장, 주영복 국방부장관, 이규현 문공부장관, 위컴 주한 유엔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그 기도회에는 새문안교회 강신명 예장통합, 김용도(기침), 김윤식(예장통합), 김준곤, 김장인 목사(예장합동), 김해득(구 세군), 박정근(순복음), 박치순(예장통합), 신현균(예장통합), 유흥묵, 이경재(기감), 이봉성(기성), 장성칠, 장성연 목사, 조덕

현 목사(기장), 지원상 목사(루터교)와 최태성 장로 등 23명이 참석했다. MBC와 KBS가 생방송을 하면서 “전두환 상임위원장을 위한 기도회”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이후 녹화방송을 두 차례 내보냈다. 전두환을 홍보하기 위한 신군부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조찬기도회가 중심이 된 연례 국가조찬기도회는 언제 열렸는가. 그

동안 1980년에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당시 언론보도를 찾아낸 결과 제12회 연례 국가조찬기도회는 ‘서울의 봄’ 때인 1980년 5월 1일 오전 8시 신사호텔에서 열렸다. 그 기도회는 한기원 목사(동신교회)가 기도(설교)를 언론이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임했으며, 민관식 국회의장직무대리, 이영섭 대법원장, 신현화 국무총리 등 3부 요인, 김영삼 신민당 총재, 신두영 감사원장, 주영복 국방부장관, 이규현 문공부장관, 위컴 주한 유엔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한기원 목사는 “시대의 지도자상”이라는 기도(설교)를 통해 “고금 역사와 해 시대가 혼란할 때 믿음 있는 지도자들

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비판하지 않고 현실을 현실대로 파악하면서 국민에게 단합과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면서 “공평, 정의, 평화 세 가지 요소가 실천되지 못하는 정부 형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현실사회를 보는 지도자의 눈에는 분명한 미래상이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규하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압력으로 8월 16일 하야했다. 그리고 전두환 씨는 1980년 8월 27일 치러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해 체육관 선거(보궐선거)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9월 1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리고 1980년 9월 30일 신사호텔에서 1,300여 명의 각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대통령 취임 축하 조찬기도회가 열렸다. 그날 예배는 흥현설 목사(전 김신대 학장)의 사회로 최훈 목사(동교회)와 이봉성 목사(기성)가 “나라를 위하여”와 “대통령과 국가지도자를 위하여”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축도는 김주오 목사(예장고신)가 맡았다. 그리고 조찬감사기도는

병을 위하여” 각각 기도했다. 김인득 장로(기독실업인회 직전 회장)의 성경봉독, 선명회 합창단 찬양, 강신명 목사(새문안교회 원로)가 설교를 했다. 김정호 목사(전 기상 총회장)는 전 대통령에게 성경책을 증정했다. 또한 축도는 한경직 목사(영락교회 원로)가 맡았다.

이듬해인 1981년 5월 14일 오전 8시 신라호텔에서 제13회 연례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다. 이태섭 의원(민정당)의 사회로 유호준 목사(예장통합, 용산교회)가 개회사를 했다. 개회기도는 이영수 목사(예장통합, 대전중앙교회)가 맡았다. 구약성서 낭독은 나석호 의원(민정당), 신약성서 낭독은 오홍석 의원(민한당)이 주제로 161~9절과 갈리다이어 17절을 각각 봉독했다.

그리고 1980년 9월 30일 신라호텔에서 헛불회 합창단의 찬양에 이어 곽선희 목사(예장통합, 소망교회)가 “소망에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특별 기도는 오경린 목사(동대문감리교회)와 이봉성 목사(기성)가 “나라를 위하여”와 “대통령과 국가지도자를 위하여”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축도는 김주오 목사(예장고신)가 맡았다. 그리고 조찬감사기도는

김순배 구세군 사령관이 담당했다. 1948년 제헌국회 때 이승만 임시의장의 사회로 이운영 의원(목사)의 기도로 국회가 시작됐다. 1965년 2월 27일 김영삼, 정일형, 김종필, 박현숙 의원 등 20여 명이 김준곤 목사(한국CCC 설립자)의 기획 주도로 국회조찬기도회가 시작됐다.

이듬해인 1966년 3월 8일 국회조찬기도회가 중심이 되어 국가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당시 김영삼, 김종필 여야 의원과 노기남 대주교 등이 순서를 맡았다. 나중에는 김수환 주기경도 참석했다. 만일 정교 유착을 위한 것이었다면 애당 국회의원이나 김수환 주기경 등이 참석했겠는가.

올해 국회조찬기도회 60주년, 국가조찬기도회 50주년 주년이 됐다. 어느 단체와 사역이나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이다. 이 모두 안고 가야 할 역사다.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와 연례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한 비판을 잘 수렴하여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모두의 사랑을 받는 국가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교회는 이 소중한 기도회의 역사를 계승해야 한다.

Your True ESG Partner

##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꽂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 끝까지 충성하라

신성옥 교수  
아신대 설교학



월 22일자).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착각이 자주 일어난다. 오랜 시간 봉사하고, 예배에 충실했고, 말씀도 많이 들었기에 “이 정도면 됐다”, “이젠 좀 쉬어도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각에 임하며, 그때까지 항상 준비된 자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우리가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장자 받을 고난을 두려워 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은 시작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삶을 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시작했어도, 마지막을 잘못 마무리하면 그 열매는 사라질 수 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다.

미국 플로리다에 실제 있었던 일이다. 1990년대, 바다를 가로지르는 긴 다리를 건설하던 한 건설팀이 있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공정을 관리하며 99%까지 완성한 어느 날, 마지막 연결 공정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 구조물 일부가 무너졌다.

결과적으로 전체 다리를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99%는 100%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다.

신양도 마찬가지이다. 99%의 충성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다. 마지막 1%를 감당하지 못해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유다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쳤지만, 주님을 배반했다. 사울 왕도 기름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 왕위를 잃었다.

해군 병사들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마지막 8시간은 명확히 정해져 있었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무도 모른다. 주님은 깨어 있는 자, 끝까지 충성하는 자, 맑은 바를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마 25:21)

해군 병사들의 사례는 한순간의 오해와 방심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8시간만 더 인내했다면, 평범하게 사화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의 실수가 군무이탈이라는 범죄로 이어졌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때 이 정도만”이라는 방심이 자리 잡을 때, 넘어질 위험이 커진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마 13:37)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자. 그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

2014년 7월, 전역을 불과 8시간 앞둔 해군 병사 10여 명이 부대를 무단 이탈했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해 큰 논란이 일었다.

사건은 토요일 전역 예정이던 해군 1함대 사령부에서 벌어졌으며, 병사들은 전날 조기 전역 신고를 마치고 공식 전역 시간인 토요일 오전 8시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정이 되자마자 자신들이 민간인이라 착각하고 우병소를 빠져나갔다.

근무자에게 이미 전역했다고 둘러댄 이들은 인근 PC방 등에서 해방감을 즐기다 몇 시간 뒤 체포조에 의해 붙잡혔다. 전역 신고만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으로 오해한 이들은 실제로는 전역일 자정까지 군인 신분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변호사 역시 “전역 신고는 요식행위일 뿐, 자정까지 군인 신분이 유지된다”고 확실하게 설명했다.

결국 이들은 군무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민간인이 된 후에도 법적 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 이번 사건은 마지막 순간까지 군인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을 되새기게 한 사례로 남았다. 해당 병사들의 가장 큰 실수는 ‘전역 신고=전역’이라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MBN 뉴스, 2025년 10

## 상상력과 비전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읽는 이들에게 상상력을 길러 주고 비전을 심어 주는 책입니다.

교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학생들에게, 국민들에게 상상력을 길러 주고 비전을 심어 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상상력을 전해 주고 비전을 심어 주는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에는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정치적

상상력과 예술적 상상력, 그리고 영적 상상력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겨레와 국민들이 바라보고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런 정치가들을 일컬어 정치꾼이라 부릅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정치꾼들에게 의하여 좌우되고 있기에 국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심어 주지를 못하고 미래를 향하여 자신들을 헌신할 동력(動力)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과업을 담당하여야 할 사명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 기사 제보

독자께서 기사화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02-739-8119 또는 press@cdaily.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기사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http://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든든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社 說

### 국민 반대 벽에 부딪힌 ‘생활동반자법안’

기본소득당 융혜인 의원 등이 제22대 국회에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법사위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는 건 해당 법안 처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뜻이다.

‘생활동반자법’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제도적 요건을 갖춘 이상 국회 법사위 상임위원회 회부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게 된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심의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또는 폐기될 것이다. 국민청원 5만명 동의는 제도상 청원이 성립했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법안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행정조치가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 ‘생활동반자법’ 발의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사위에 직접 전달됨으로써 해당 법안에 대한 신중한 처리 절차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교계는 ‘생활동반자법’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5만 명을 들판에 국회 법사위로 회부된 것에 고무된 모습이다. 동반연과 진평연 등 교계 단체들은 최근 국민청원 5만 들판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생활동반자법’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생활동반자법’이 혼인제도를 약화시키고 동성결합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앞서 이 법을 도입한 서구사회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재차 지적했다. ‘생활동반자법’을 시행하는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현상이 혼인율의 급격한 하락과 혼외 출산율, 가정 해체의 급증이다. 실제 이 법이 시행된 프랑스 등에선 평균 18개월 남짓 지속된 동거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혼인 가정 출생아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학대, 우울증, 학교 중퇴 등의 위험이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안겨줬다.

지난 9월 3일 기본소득당 융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이 아닌 관계로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한 계획이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회기 연속 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융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하자”라는 글을 올리며 연일 법안 통과를 위해 군불을 끄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의 취지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와 의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 현실에 걸맞은 새로운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혼인 관계가 아닌 연인, 친구, 동료 관계도 새로운 가족 범주에 넣어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융 의원을 비롯, 법 제정에 찬성하는 측은 혼인 관계만을 보호하는 현행의 법이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혼인이 아닌 가족도 가족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문제는 이런 시도가 전통적인 가족 관계뿐 아니라 한법이 정한 가족의 개념을 무너뜨릴 경우 위험한 발상이란 것이다.

그가 토론회에서 거론한 ‘특정한 가족’이란 혼인 가정을 지정한다. 그 혼인 가정을 인정하는 법까지 낡은 법과 제도라는 게 융 의원의 주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혼인이 아닌 어떤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인지 궁금해진다.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성장해 결혼해 자녀를 낳고 국회의원까지 된 분이 본인의 태생조차 부정하는 듯한 논리로 어떻게 한법과 국민 대다수와 싸워 이기려는 건지 짐작볼 일이다.

현행 법제는 이미 사실혼 제도를 통해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1인 가구·한부모가족·임금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도 개별 법률에 따라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혼인 관계 외에 모든 가족관계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하는 건 현실과 큰 괴리감이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생활동반자 관계 역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사회 전 영역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비롯하여 총 25개의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다른 아닌 법안에 담긴 숨은 의도 때문이다.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는 건데 사실상 동성 간의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겉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떠들지만 실은 동성 간의 결합을 제도화하려는 위장 암법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는 게 교계의 시각이다.

현행 법은 모든 ‘생활동반자’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혼은 혼인이 아닌 남녀 부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생활동반자’는 남녀뿐 아니라 남남 또는 여여 등 동성 관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혼법과 충돌한다.

이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법사위에서 폐기된 건 현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혼인을 감소화·가족해체 등 갖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과 가장 유사한 프랑스의 PACS의 경우 법적 권리는 혼인과 유사하면서 계약 및 계약의 해지에 드는 비용이 혼인보다 훨씬 저렴해 이성 커플 사이에서 대중적인 제도로 자리잡았으나 결과적으로 혼인제도 자체를 봉고시킨 요인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22대에 와서 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융 의원은 최근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특정한 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건강 가정’이라는 틀에 맞춰 가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낡은 법과 제도는 많은 국민과 가족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생활동반자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토론회에서 거론한 ‘특정한 가족’이란 혼인 가정을 지정한다. 그 혼인 가정을 인정하는 법까지 낡은 법과 제도라는 게 융 의원의 주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혼인이 아닌 어떤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인지 궁금해진다.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성장해 결혼해 자녀를 낳고 국회의원까지 된 분이 본인의 태생조차 부정하는 듯한 논리로 어떻게 한법과 국민 대다수와 싸워 이기려는 건지 짐작볼 일이다.



# ‘쉬었음’ 3년 새 18% 급증…“청년층,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국가데이터처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발표  
8월 쉬었음 인구 264만1000명…1년 새 7만3000명 증가

별다른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1년 새 7만3000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64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3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4만명), 60대(1만 9000명), 50대(1만6000명), 30대(1만9000명) 등에서 쉬었음 인구가 증가했고, 40대(6000명)와 20대(3000명), 15~19세(1만2000명)에서는 감소했다. 또 남자는 621만5000명으로 78만명 증가했지만, 여자는 100만5000명으로 7만명 감소했다.

쉬었음 인구는 223만9000명에서 2023년 232

만2000명, 2024년 256만7000명, 2025년 264만 1000명으로 최근 3년간 18%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가 1.12%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변동폭이 급격했다.

쉬었음의 주된 이유로는 ‘몸이 좋지 않아서’(34.9%)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19.0%),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8.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청년층(15~29세) 쉬었음 인구는 44만7000명으로 전체의 16.9%를 차지했다. 15~29세 연령층에서는 쉬었음의 주된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34.1%)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지난해 30.8%에 비해 응답 비율도 상승했다.

8월 기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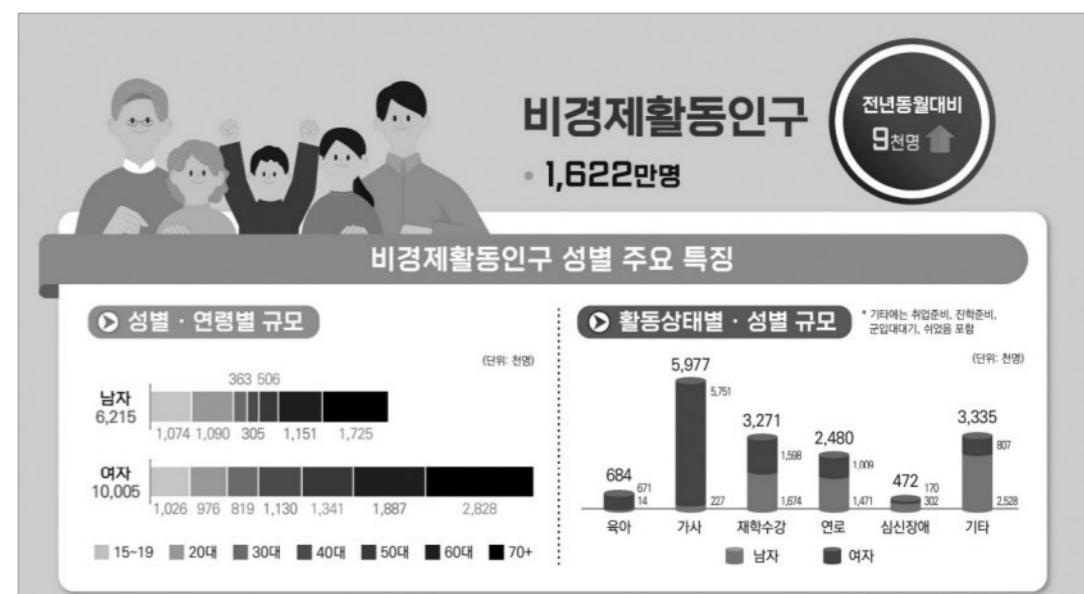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5.4%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p)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뜻한다.

활동 상태별로 보면 가사(597만7000명, 36.9%), 재학·수강 등(327만1000명, 20.2%), 쉬었음(264만 1000명, 16.3%), 연로(248만명, 15.3%), 육아(68만 4000명, 4.2%) 등의 비중이 높았다. 가사는 1만 3000명, 재학·수강 등은 2만1000명 증가했고, 연로는 5만명, 육아는 4만8000명 감소했다.

향후 1년 내 취업 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30만1000명(20.4%)으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다.

1년 이내 취업 시 주요 고려 사항은 근무여건(31.0%), 수입·임금수준(27.5%), 자신의 적성 및 전공(23.8%) 순으로 높았다.

취업 시 희망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43.6%), 300만원 이상(27.6%), 100만원~200만원 미만(21.7%) 순이었다.



2025년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국가데이터처 제공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으로는 보건·사회·복지·방·사회보장행정(11.0%) 등을 꼽은 응답이 많았(16.8%), 도소매·숙박음식업(13.6%), 공공행정·국·서다은 기자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절세 꿀팁’ 알아보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지난 5일 시작

주요 공제·감면 맞춤형

확인 서비스 오늘 개시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 5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오늘(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흠팹스에(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

리보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종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확인 가능하다.

또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팀은 다양하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에 해

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는 2024년 8만명에서 2025년 15만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 기부금, 교육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안내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보다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서다은 기자

##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최장 12년간 지원한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개선해 오는 20일 신규 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 보증금 대출 시 최대 연 4.5%(소득과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 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 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가구 대출 연장 기간이 확대된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 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자녀 2명을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1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화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 지원이 추가됐다. 난임 시술 증빙 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주거 시장 변화를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인 임차 보증금 7

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 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환산 임차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한다. 최근 6개월간 서울 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 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청년의 경우 주택 월세 기준을 기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그간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보호 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훌로서기에 나선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 금리(1.0%)가 신설됐다.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앞으로 자립 준비 청년도 보호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 이자를 지원 받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0·15대책 이후 전월세 가격 급등 상황에서 임차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 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리 기자

## 임신 중 ‘이것’ 복용…“미세먼지로부터 모자 건강 지켜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임신기 비타민D 섭취가 후 21일까지 각 물질을 경구 투여했다. 이후 출산 후 21일째 산모와 수컷 새끼의 신장을 각각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임신기 미세먼지 노출은 어미 쥐와 새끼 쥐 모두에서 사구체 손상, 세뇨관 간질 손상, 그리고 피질 내 대식세포 침윤을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고 보고 있다.

임형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임신한 9마리의 흰쥐를 ‘생리식염수 투여군’과 ‘미세먼지(PM<sub>2.5</sub>) 단독 투여군’, ‘미세먼지(PM<sub>2.5</sub>) 조절(레난·ACE), 염증 조절(NF-κB p50)’ 가능이 감소되는 등, 어미 쥐와 유사하게 신장의 구조적 손상이 관찰됐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된 어미 쥐의 새끼 수는 임신한 9마리의 흰쥐를 ‘생리식염수 투여군’과 ‘미세먼지(PM<sub>2.5</sub>) 단독 투여군’, ‘미세먼지(PM<sub>2.5</sub>) 조절(레난·ACE), 염증 조절(NF-κB p50)’ 가능이 감소되는 등, 어미 쥐와 유사하게 신장의 구조적 손상이 관찰됐다.

반면 비타민D 병용 투여군의 새끼 쥐는 비타민D 신호(VDR), 혈류 조절(ACE), 염증 조절(NF-κB p50) 가능이 회복돼 미세먼지로 인한 신장 손상이 완화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임 교수는 “산모의 비타민D 섭취가 미세먼지로 인한 산모자손의 신장 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향후 모체태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영양증재 연구와 관련 신약 개발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신장학회는 임 교수의 이번 연구가 지난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해, 대한신장학회 공식 국제학술지(KRCP) 올해 우수논문상을 수여했다.

이로리 기자

## 항산화 효과, 일반 마늘의 5배!

판매처 : 153 헬스코리아 주식회사

상품명: 153 세싹마늘 원산지: 국내산 포장재: PET 보관방법: 구입 후 냉장보관 생산자: 두두아쿠아  
인증번호: 제10307836호 허가장: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203-9-10 소비자상담: 070-7895-1597  
\*부탁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씻어서 드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제품 구매하려 가기 →  
153세싹마늘 스마트스토어

매일 먹는 마늘, 오늘부터

## 153세싹마늘로 바꿔보세요!



화학비료&병충 ZERO

물고기와 식물의  
공생 시스템으로 키운  
100% 친환경 새싹마늘입니다.



영양소의 극대화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해  
높은 영양가와  
신선도를 자랑합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법

물 사용량 및 농업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환경과 사람에게  
건강한 농법입니다.



### 특허받은 아쿠아포닉스 재배 방식

깨끗한 물에서 화학비료와 병충해 없이  
건강한 새싹마늘만을 키우는 재배 방식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허번호 : 제10-1581729호

N 153 새싹마늘

구매 문의 070-7895-1597

##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 연 3.99%~5.49% 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5. 토지: 2,756m<sup>2</sup>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sup>2</sup> (139.75평) + a(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낯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NAVER 검색창에서 **충만기업** 을 치세요!

## 충·만·기·업



### ◆ LED 설치 및 네온수리 전문★

◆ 종탑, 종각, 파이프탑 시공

◆ 각종 구조물탑 시공

◆ 대형십자가, 소형십자가 시공

◆ 각종탑 철거, 이전

TEL: 02-802-2005 H.P: 010-5276-9049

FAX: 02-806-3334 (경남지점) 055-942-1038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795-17 / 대표: 정현석 집사

[일어나라 빛을 빌려라 이는 네 빛이 이로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http://www.mgbc.tv))에 접속  
2. 매인 화면의 국가나 국가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아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감사  
약력**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생교회 담임목사
-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현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현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1995. 9 개척
- 2000. 4 1차 성전건축
- 2008. 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끝어짐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낙도·오지교회
- 3 無부흥회:  
사례, 숙소, 식사

·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 한생교회: 032-512-3375

**신청  
방법**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른신께 페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 †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

###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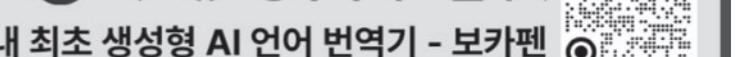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60개  
언어 번역

**AI VOCA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 †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 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플,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 리처드 포스터의 마지막 수업

신간 '겸손을 배우다'



세계적인 영성 고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깊은 영적 통찰을 전했던 리처드 포스터가 마지막으로 남긴 주제는 다른 아님 '겸손이다'. 그는 말한다. '겸손은 인간을 다시 흙으로 데려다 놓는 일이다.'

새롭게 출간된 책 <겸손을 배우다>는 포스터가 1년 동안 겸손의 본질을 탐구하며 써 내려간 영적 일기이다. 순례의 기록이다. 현대인의 내면을 파고드는 자기과시의 문화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겸손의 참된 의미를 다시 배운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확히 보는 것이다' 책은 겸손을 단순히 '비굴함'이나 '자기부정'으로 오해하는 현대의 시선을 바로잡는다. 포스터는 겸손이란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도, 낮게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진실함의 덕목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이렇게 쓴다. "겸손은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지도, 낮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강점과 결함을 동시에 적시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이다." 이처럼 포스터는 겸손을 '인간됨의 회복'으로 본다. 사람을 다시 흙으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힘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 겸손(타페이노스)은 '천하의', '비굴하다는 부정적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씀으로 이 가치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 포스터는 이 점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겸손의 의미를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 안에 거하는 상태로 바

꾸셨다고 말한다. 이제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제자도의 핵심이 되었다.

그는 일기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겸손의 정후 중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다. 겸손한 이는 다그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

또한 포스터는 인간의 노력으로 겸손을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겸손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순종과 공동체라고 강조한다.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영적 스승과 신앙의 친구들이 서로를 불들 때, 비로소 겸손은 성품으로 자리 잡는다.

따라서 겸손은 개인의 내면 수양이 아니라 공동체적 덕목 이자 하나님 나라의 관계적 힘이다.

최승연 기자

신간

## 기도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기도란 무엇인가요?" 이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많은 이들이 머뭇거린다.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의 방법과 의미를 잘 모르는 이들, 혹은 기도를 시도했지만 중간에 포기한 이들을 위해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왔다. <기도를 시작하는 당신에게>는 화려한 신비나 이론이 아닌, 지금 당장 무릎 꿇는 법을 알려주는 실제적인 기도 안내서다.

저자는 이 책을 "기도의 완전한 교과서가 아닌, 기도의 첫 걸음을 떼려는 이들을 위한 작은 징검다리"라 소개한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의 말처럼, 이 책은 응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한다.

저자는 이렇게 묻는다. "예수님조차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 는 기도하지 않는가?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기도를 시작하는 당신에게>는 기도에 관한 수많은 이론보다 기도의 실제를 강조한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광활한 대신 오늘 하루의 한 시간, 단 몇 분이라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권한다.

저자는 "정해진 운동 시간이 없으면 운동을 지속하기 어렵듯,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 역시 자속될 수 없다"라고 말한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다. 다만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입을 여는 단순한 순종에서 출발한다.

이 책의 중심 메시지 중 하나는 "성품이 곧 능력이다"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

유와 절제의 능력을 얻게 된다."

기도는 인간의 감정과 습관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훈련이다. 잘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며,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기도는 단순한 영적 훈련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는 힘이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이렇게 당부한다. "의무의 기도가 아니라 사랑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벤트의 기도가 아니라 삶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는 기도를 '마지막 숨이 달을 때까지 지속해야 할 생명의 호흡'으로 묘사한다. 기도는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삶의 리듬이다. 그 리듬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보다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신다.

최승연 기자

##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월가 애널리스트 신순규, 세 번째 에세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출간

"불가능은 없다,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 삶을 향한 도전과 긍정의 철학 담은 신작



"할 수 없다고?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 이 한마디로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한 인물이 있다.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공인재무분석사(CFA)로, 31년째 미국 뉴욕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신순규가 그 주인공이다.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랙(유퀴즈)' 출연을 통해 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주목받은 그는, 최근 세 번째 에세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봅시다>(판미동)를 출간했다.

이번 책은 그가 4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으로, 앞선 두 권의 에세이에 이어 한층 깊어진 인생 철학과 도전의 이야기를 담았다. 제목은 '유 퀴즈' 출연 당시 그가 남긴 말에서 따온 것으로,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과 '끝내 방법을 찾아내는 삶의 태도'를 상징한다.

신순규는 미국의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시각장애로 인해 양궁 수업을 듣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운 한 교사의 경험을 회상한다. 시각장애를 이유로 제약을 두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지도한 그 교사 덕분에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방법은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 이 경험은 이후 그의 인생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책에는 월가 애널리스트로서의 긴장감 넘치는 일상과 시각장애인으로서의 현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이야기가 어우러져 있다. 신순규는 일상 속 사소한 경험에서 얻은 통찰을 금융 시장의 흐름과 인생의 변화에 빗대어 풀어내며, 삶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방법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책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방법을 찾으려 노력한다"고 밝히며 장애를 한계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강조했다. 불가능을 인정하고 멈추는 대신,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과정을 솔직하게 들려준다.

신순규는 『두 눈 크게 뜨고 세상을 살았다면』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시각장애는 나에게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애 때문에 급속도로 변해가는 세상을 그저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분명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나래 기자

정 집사님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장로님, 장로님, 놀랐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등 뒤에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짹 둘러서 강력하게 힘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설교 말씀에 능력을 부어 주고 계시더구요" 정 집사는 아예 훌쩍이고 있었다. "그런데 장로님, 안타깝게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말씀을 따라 물붓듯이 퍼부어집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은혜를 전혀 맛보지 못하고 거짓으로 흘려버리고 있었어요. 심령 깊이 새겨지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분이 몇 명 밖에 되지 않더구요" 와락 나를 끌어안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장로님, 여태 예배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귀한 줄 몰랐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까맣게 몰랐습니다. 흑흑흑..." 물론 한 개인이 경험한 영적 체험이므로 성경적 보증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 은혜를 확인한다.

박효진 '하나님은 지금도 고치고 계신다'



사실, 기독교는 자기반성의 요소가 강한 종교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먼저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점검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제자도'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Discipleship'으로 표현된다. 이 단어와 비슷한 어원의 단어가 규율(discipline)이다. 규율이란 사람이 자기 본성을 이기고 훈련을 통해 자신을 수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 부인, 자신의 본성을 이기 냄과 같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고 자신을 돌아 볼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이점이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본성이 살아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훈련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팀워크가 되지 않는 것이다. 교회의 리더십은 반드시 이 지점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안성진 '세븐 미라클'



신앙은 빛이며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얻은 사람은 온 우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힘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의 암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면 삶의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산과 같은 파도 속에서 완전한 쉼표로 여행하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들은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신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지나 종착 세계에서 휴식을 얻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그를 날아갈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즉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을,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분에게 의탁, 그분께 의탁하는 것은 이 세상과 내세의 행복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십시오.

베디웃자만 사이드 누르시 '인간과 신앙'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크리스천투데이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추천사

장로님께서 질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장교회)

증언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울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 매일묵상 여호와 우리의 의

### [예레미야 23:6]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큰 위로와 평강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자주 낙심하며 슬퍼합니다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항상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패했다는니, 우리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니 하며 항상 부정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예,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왜 거기서 한 발

짝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만 늘 생각하고 있으니 그렇게 풀 죽은 얼굴을 하고 다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아주 맹랑하고 폐활해질 것입니다. 설사 골치 아픈 일들이 나를 짓누르고, 사탄이 나를 맹공격하며, 천국에 이르기 전에 체험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한들 그게 뭐 그리 대수입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부족함이 다. 물론 우리가 부패했다는니, 우리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다 이루어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빌 3:9)

여러분은 천국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내가 아무리 무가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는 그 온 힘에 감사하여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만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섭외야 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자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후 5:14-15)

만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구원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찰스 스펠전의 아침묵상, 열방선교단 제공

### 바이블지식IN

## 첫째 부활은 무엇인가요? 둘째 부활은 무엇인가요?

다니엘 12:2은 인류가 마주하게 될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운명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겠지만, 모두 동일한 운명을 마주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있을 서로 다른 부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4-6은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있으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사망(불꽃, 요한계시록 20:14)은 이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첫째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로써, 예수께서 가르치신 “의인들이 부활” (누가복음 14:4)과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29)과 일치합니다.

첫째 부활은 여리 단계로 이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20), 그 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위한 길을 밟으셨습니다.

첫째 부활로, 예루살렘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52-53). 또한, 앞으로 주

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的 부활 (데살로니가전서 4:16), 그리고 대환난 말기에 있을 순교자들의 부활(요한계시록 20:4)이 첫째 부활에 포함됩니다.

요한계시록 20:12-13에 의하면 둘째 부활은 불꽃에 던져지기 전 크고 흰 보좌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악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둘째 부활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며 둘째 사망과 연결됩니다. 또한,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29)과 일치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마지막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요한계시록 20:4) 왕 노릇 하는 것이지만, “그나마 죽은 자들은 [즉, 사악한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5).

첫째 부활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둘째 부활에는 또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두려움으로 급히 여기라” (유다서 1:23). 갓퀘스천스 제공

## 날 새롭게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부흥의 중요성 (1)

### 〈들어가는 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회를 하기 직전인 1927년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자료를 접했으나 더 상세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두 권의 조나단 에드워즈 전집을 발견한 후,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 같아 기뻐했으며, 실제로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체험하며, 정말 성령의 부음을 받으면 강력한 인상이 남고, 그것은 곧 거룩한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나는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와 책들을 읽다가 하나님과 내밀한 심정을 보고는 불에 던 것처럼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강하고 세미하게 역사하셨기에, 그 진리의 말씀을 읽는 나에게도 뜨거움이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목사님은 설교자로서 능력을 받아, 청중들에게 정확한 성령의 음성을 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에드워즈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물주와 만나도록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입니다. (p. 372)

실제로, 에드워즈 목사님은 설교자로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목사님은 청중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인상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교의 일차적이고 근원적인 목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에드워즈가 말하듯이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설교할 때 인상입니다. 그것이 설교한 후에 기억할 수 있는 것보

### 다 더 큰 것입니다. (p. 370)

에드워즈 목사님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뛰어난 체험 신학자이자 부흥 신학자였습니다. 목사님은 성령의 부으심을 부흥이라고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 인상에 남기는 것을 중요시한 것도 부흥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체험이며, 정말 성령의 부음을 받으면 강력한 인상이 남고, 그것은 곧 거룩한 삶의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부흥을 고대했으며 사모했습니다. 윌리드 목사님과 동역한 것도 부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방향에서 부흥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즉, 형식주의와 열광주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으며, 이를 기록으로 남겨 후세의 크리스천에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흥을 반대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칼뱅주의자였으나 부흥을 싫어했습니다. 또한 강정적인 요소를 싫어했고 색다른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많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극단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거칠었습니다. 그들은 광신주의 자들인데 극단으로 치우쳐서 어리석음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p. 373)

그가 이렇게 부흥에 대해 응호하고 방어했던 이유는, 성령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부흥이라고 보았고, 성령의 소멸을 여부흥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역부흥을 막기 위해, 즉 성령의 소멸을 막기 위해, 그 당시 훌로 고군분투했던 것입니다. 이를 눈에 가시같이 여기던 사탄은 전 군단을 오로지 하나님의 표적, 에드워즈에게 집중해서, 그가 무너질 때까지 공격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됩니다)

부흥이란 성령의 부어 주십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의 주체가 아닙니다. 에드워즈는 부흥이 진정으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줍니다. (p. 379)

그가 이렇게 부흥을 강조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의 구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크리스천으로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부흥가로서, 신학자로서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전 생애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의 모든 책을 읽어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글을 읽고 나서 그가 가장 강조한 것 이 무엇인지 포착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을 얻었다고 거기서 머물지 마십시오. 또한 최고의 체험을 누렸다고 거기서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언제나 참된 체험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p. 381) - 1976 〈계속〉

찰스 스펠전의 아침묵상, 방선교단 제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 송태훈 칼럼 우리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말씀 따라 새롭게(111)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시 23:5)

권혁승 박사

시편 23편의 후반부(5-6절)는 내용상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시는 모습(23:5)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23:6)이 그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한 손님이 아니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신다. 광야의 목축 문화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소중한 덕목이다. 그것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나그네를 보살피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곧바로 위협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도 손님 접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시내산 언약과 관련된 율

법은 이방 나그네에 대한 압제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지냈었기 때문이다(출 22:21). 그런 점에서 나그네를 접대하는 덕목은 단순히 목축 문화의 유산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그런 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출애굽의 역사적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손님 접대에서 예의범절과 절차도 중요시한다. 오늘의 본문은 손님을 맞이하는 절차를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 첫 번째 절차는 집안에 들어서는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기름은 감람유에 향료를 섞어 만든 것인데, 집주인이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을 맞아하면서 환영의 표시로 한다.

이것은 구약시대 제사장이나 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을 뿜는 의식과는 구별된다. 그런 차이는 각 경우에 사용되는 동사가 다르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제사장이나 왕을 위한 기름부음에 사용되는 동사는 ‘마사흐’인데,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에 사용되는 동사는 ‘다센’이다.

‘다센’의 기본적인 의미는 ‘살이 짜다’로서, ‘변성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집주인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에는, 자신을 찾아 온 손님에게 변화의 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다른 면에서 향료를 넣어 만든 기름은 일종의 향수 역할을 한다. 먼 길을 걸어 온 손님의 몸에서는 땀과 먼지 등으로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손님에게 기름을 발라 줌으로써 그런 냄새를 제거해 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름 바름은 손님에 대한 일종의 배려라 할 수 있다.

(2) 두 번째 절차는 포도주가 담긴 잔을 건네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에서의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징이며(창 27:28), 사람에게 주어진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한다(사 16:10; 렘 48:33). 그러므로 손님에게 포도주 잔을 건네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는 주인의

호의를 표시하는 것인지도 하다.

포도주 잔을 건네 주는 것에는 또 다른 실제적인 면이 있다. 먼 길을 걸어 온 손님은 광야의 무더위 속에서 심한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손님에게 포도주 잔을 건네 주는 것은 갈증과 더 위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손님은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그 동안의 피곤과 갈증을 해소할 뿐 아니라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다.

(3) 세 번째 절차는 손님에게 푸짐한 밥상을 차려 주는 것이다. 손님을 향한 환영의 마지막 단계는 정성껏 음식상을 차려 주는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음식상에는 단순히 음식을 나눈다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다. 음식 나눔은 언약 체결 의식에 동반된다는 점이다. 그런 점은 시내산 언약 체결 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출 24:11). 그것은 화목제의 제물 나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레 7:15). 언약으로서의 음식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신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도 잘 표현되

어 있다(마 26:26).

집주인은 그동안 손님의 뒤를 쫓아 왔던 원수가 보는 앞에서 밥상을 차려 주었다. 여기에서 밥상과 원수 대적과의 관계는 목축 문화의 관습을 통하여 조명해야 할 요소이다. 유목민이 일단 나그네를 자기 집 천막의 손님으로 받아들으면, 그때부터 손님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전적으로 그 집주인의 책임이 된다.

이 책임에는 의식주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신변 보호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나그네가 집주인의 손님으로 영접되면, 그의 대적은 그때부터 집주인의 대적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풍성하게 차려진 밥상은 곧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힌 대적들에게서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친 광야에서의 고된 삶이 전부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의 영접이 기다리고 있다. 광야에서의 삶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지만, 마지막 하나님 집으로의 영접은 고난의 모든 근본 원인들이 제거된 참 안식의 보장으로서 ‘부족함이 없음’의 마침표다.

이 땅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준비하는 거룩한 기회다.

이 땅에서 순례를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그 때문이다(미 5:11-12).

보다 적극적인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힘든 일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을 미리 준비하는 지름길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외식하는 자가 보면 그것으로 이미 상을 받은 것 이어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놓치게 된다.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이어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 때문이다(마 6:1-4).

권혁승 박사(전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

## 김성광 칼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라



故 김성광 목사

많은 이들이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양 교만을 부린다. 그리고는 세상의 잣대에 자신을 맞추느라 바쁘다.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를 등지고 있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모른 채 말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잘못된 이해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간으로서는 측량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째, 위대한 기적의 하나님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 1889-1975)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역사의 경로와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과거형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실재이다.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기적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둘째, 광대한 능력의 하나님

했던 대한민국.

참으로 비참했던 6·25 전쟁 직후,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회복 불능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누구도 우리에게서 희망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셨다. 정치, 경제, 문화, 어느 것도 부족함 없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 각국의 지원으로 연명하던 원조 대상국 중 유일하게 원조 공여국이 된 우리는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며 경제 대국으로, 대중문화와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절망에 갇혀 있던 한 민족이 희망의 증거가 된 놀라운 역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 있는 기적이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과거형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실재이다.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적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값싸게, 적당히, 부족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차마 꿈꿀 수 없는 것까지 이루시는 분이다. 당신이 어떤 큰 문제를 갖

고 있더라도 광대한 능력의 하나님께는 간단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만 생긴다면 말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재단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셋째, 귀한 지혜의 하나님

6명의 미국 대통령과 4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배출한 최고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미국 최초의 대학이기도 한 하버드 대학교는 ‘기독교인은 지식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졌던 존 하버드가 사재를 털어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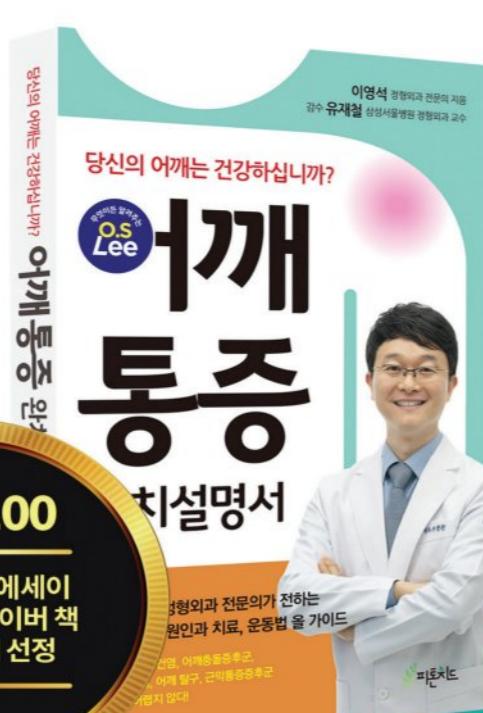
한 기자가 그에게 하버드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인 된 이유를 물었다. 그의 대답은 명쾌했다. “모든 학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를 알게 하였지요. 오직 주님만이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 1795-1881)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행복의 결핍이 아니라 지혜의 결핍”이라고 했다. 많은 이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지혜는 아무런 힘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그르치기 쉽다. 인간의 얕은 지식을 참된 지혜라 부를 수 없는 이유다.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지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크고 풍성한 지혜를 당신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기적, 큰 능력, 귀한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죽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크기 만큼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라.

##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 신앙과 가정 축복의 언어를 심으십시오

정답꾼의 말을 듣고 웃을 땐이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들은 그 결과 하나님의 보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말은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셨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가진 자라면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신 분이라면 더욱 말하기를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여 잠 못 이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담아 칭찬을 한다면 그 칭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파괴의 씨앗이 되어 절망에 기름을 끼고 결국 낙심하게 한다면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우리 삶에 용

기를 주며 믿음의 뿌리가 되어주며 우리 앞에 가로막힌 듯한 산들을 옮겨 놓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불신의 어둠을 거두어 가고 진실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합니다. 진실하게 쏟아 놓아야 하는 할 말을 못 하였기에 평생 오해를 가슴에 쌓으며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마음에 오늘도 말씀의 꽃씨를 심으십시오.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

로 거두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말을 통하여 우리 삶에 은총을 내리고 복을 주십니다. 잠언에 보면 입술의 열매로 먹고 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부정적인 한마디가 우리 삶에 주님의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쓴 말 한마디가 미움의 싹이 트고 무례한 말 한

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역사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만큼 믿는 이의 생각이나 말을 주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온 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역사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만큼 믿는 이의 생각이나 말을 주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주님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 믿음의 꽃을 심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제공

## 교회오빠

### 가정의 31가지 이슈

1. 우정 투명성 있는 신뢰감과 격려, 도움과 재미난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주위 친구 찾기.
2. 돈 관리 지혜로운 지출과 저축, 빚 해결, 예산 짜기와 십일조, 기타 재정 계획과 돈에 대한 태도 등.
3. 하나님과의 관계 성숙 이론과 실제를 겸한 교육, 예배, 전도, 친교, 봉사와 헌신 등의 경험을 통한 영적 성장.
4. 시간 관리 '데이터이마', '팸 파일럿' 등 첨단 과학적 시간 관리 '즉흥 장애'가 흔한 시기에 스트레스를 줄일 여유 시간 마련.
5. 건전한 오락 영화, TV, 라디오와 인쇄 매체, 음악 등을 통한 오락.

6. 남 섭기기 가진 은사로 어려운 시기에 처한 남들에게 사랑 베풀기보다 나은 영, 훈, 육, 정서적 건강 생활을 위한 무상 돋기.
7. 이호자 돋기 이호한 사람의 삶 치유 돋기, 그룹 프로그램이나 일대일 상담과 격려.
8. '삶의 계절' 적응 갠년기와 노년기 등 나이에 수반되는 변화에 올바로 적응하기, 도움받기.
9. 직업상 변화 전근, 실직 스트레스 관리, 신체적 변화의 바른 극복.
10. 영적 훈련의 유지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를 성숙시키는 정기 활동 실천.
11. 현재와 과거의 마야 알코올 남용 습관 다루기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그룹 프로그램이나 일대일 상담과 격려.
12. 성 신체적, 정서적 학대 다루기 과거 상처의 치유, 해묵은 패턴과 사고 깨뜨리기, 긍정적인 새 사고 방식 개발.
13. 신체적 건강 생활과 식습관 개발 흡연 결성 관계 지속, 잡안 내력 배우기와 연결성 관계 지속, 잡안 내력 배우기와 변

## 연, 몸무게,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

14. 데이트와 결혼 준비 상대방의 영적, 정서적, 신체적, 심적 매력 찾기, 예상되는 부담에 대한 책임 확인, 상대방의 준비 돋기.
15. 개인차 이해 배우자의 개성과 행동 양식 알기, 슬기로운 적응과 관계 개선, 상대방 능력 최대한 돋기.
16. 남편과 아내로서의 성격적 역할과 책임 이해 남자와 여자에의 성경적 관점에 대한 '안개' 걷기, 가장직(headship)과 복종에 대한 참된 재구명.
17. 배우자의 필요와 기대에 대한 이해 인생 관리 (위 15번과는 다른) 개인차 배우기 (15번 내용이 하드웨어라면 이것은 매일 단위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며 핵심적인 개성이 아닌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18. 상호 대화 개발 유지 배우자 간 투명성 확보, 시간 관리 개선, 상호 양어 용어 개선, 과거 삶 치유 고치기, 약점과 속마음 나누기.
19. 성생활 개선과 친밀감 강화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와 상호 욕구 고백, 성생활 빈도와 시간 조절, 성 문제 다루기와 개선.
20. 로맨스 회복과 유지 진술한 감정 표현과 대화, 존경심, 서로에 대한 단순한 즐김, 둘만의 시간 갖기, 격려, 이 모두의 개선을 위한 보충과 배움.
21. 강한 결속 구축 깨지지 않을 부부 결속감 조성, 좋은 배우자 되기 노력, 상대방의 성숙을 위한 도전 주기, 인생 풍파와 위기 속에서의 상호 신뢰, 언약, 책임의 강화, 삶의 고락 나누기.
22. 시집 치가 간 관계 배우자 본가와의 연결성 관계 지속, 잡안 내력 배우기와 변

## 화에의 긍정적 적응.

23. 종교 간 결혼 비 종교인이나 타 종교인 부부간의 관계 유지, 차이보다 상호 이해와 동질성 배우기, 전도 기회와 결신을 위한 끈질긴 기도.
24. 자녀 성숙과 독립 돋기 자녀의 단계에 대한 예상과 이해 돋기, 대학 입학과 결혼 등 독립성 키우기와 보내기, 부모 자신의 미래 진전 조정.
25. 가족 대화 개발과 개선 투명성 확보, 창의적 시간 관리, 양어 개선과 새 양어, 용어 발견 계발, 대인 관계 적응과 정서 안정 및 안전을 위한 창조적 가정 환경 조성.
26. 자녀 돋기 개성, 정체성, 도덕성 개발, 자녀의 인격 성장 돋기, 믿음에 의한 결정, 자녀 행동과 품성 연구, 잠재적 교육 개발 훈련.
27. 자녀 훈련 상벌을 통한 품성 변화와 덕목 함양, 함께 이해시키기, 행동 형성을 향한 상벌 적응.
28. 학력 달성을 자녀의 학교 교육과 학우 관계 등 교육 환경에 관한 모든 것 다루기와 돋기.
29. 영적 성장 돋기 하나님 알기 유타구 증진, 집 안팎에서의 영적 성숙 기회와 환경 개발 장려.
30. 기독교 세계관 정립과 교육 부모의 영적 인생관,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 가르치기, 먼저 부모 자신의 가치관을 설정 확인하고 객관적, 의도적으로 전달하기.
31. 기독교 세계관 정립과 교육 (두 번째) 부모의 영적 인생관,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 가르치기, 먼저 부모 자신의 가치관을 설정, 확인하고 객관적, 의도적으로 전달하기.

창골산 봉목사 제공

## 향유목록

### 여섯 번째 대멸종, 인류가 사라진다

지구는 46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또 사라지며 지질 시대를 구분했다.

과거 지구에는 다섯 차례의 대멸종이 있었고, 각각의 대멸종은 매번 약 90%의 생물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었다.

과학자들은 말한다.

여섯 번째 대멸종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원인이 소행성도, 화산도 아닌 바로 인간,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다.

자연은 천 년에 1도의 변화 속에 있었지만, 인류는 불과 백 년 만에 1도를 넘어서는 기운 상승을 만들어냈고, 이로 말미암아 폭염, 홍수, 산불이 세상을 덮고 있다.

그린란드 빙하는 역대 최대 속도로 녹아내리고, 북극의 해빙은 30년 안에 사라질 전망이다.

영구동토층에 갇힌 탄소가 풀려난다면, 지구는 통제할 수 없게 된다.

플라스틱은 인류세(人類世)의 흔적 이 되었다.

150년 만에 지구를 뒤덮으며, 심해에서 극지방까지 퍼져 나갔다.

지층 속에 남을 인류의 유산이 되어 가고 있다.

자연은 불균형을 반드시 바로잡는다.

순환은 회복을 요구한다.

인류가 멈추지 않는다면, 붕괴는 피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경고를 무시했다.

자연의 선물을 파괴하며, 플라스틱과 방사능을 남기고, 미래 세대에 죽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다.

기후 위기는 그저 과학의 경고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질서를 짓밟은 죄악의 결과이며, 회개의 요구다.

탄소를 쏟아내고 쓰레기를 퍼뜨리며 텁텁한 삶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심판대 위에 올려놓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

“너희가 내 땅을 어떻게 돌보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는 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한다.

창조질서를 지키라는 부르심 앞에 무릎 꿇고, 돌아어야 한다.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삶으로 환경을 지키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 지리라” (호세아 4:3)

〈산마루서신 <http://www.sanletternet>〉은 이 땅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NICH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조성환 목사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삼상 17:45-50)

나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여러 번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이 인생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마치 위에 인용한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골리앗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것처럼 말이다.

머리에는 높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높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높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높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베를 채 같고 창 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삼상 17:5-7)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마련이다. 허점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리고 빠져 나갈 길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말이다. 때로 다른 사람에게는 가벼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너무 무겁기만 한 상황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고 축복이다. 왜냐면 과연 내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영원에 빛대어서 자신의 인생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전쟁에 초점을 맞춰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다.

다윗은 4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홀로 들에서 양을 치다가 만난 사자와 들짐승들을 물리치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저기셨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가정에서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등이 우리를 끊임없이 염려하고

록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라는 아름다운 수 있기를 원한다. 물맷돌을 골리앗의 정끈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과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라고 선포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 ◆ 조성환 목사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거쳐 1986년에 도미하여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음대 대학원 과정(Master of Fine Arts in Vocal performance)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연주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HIU)에서 교회음악과 과장으로 17년째 재직중이며 이민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교회음악 전반을 책임지며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섭기고 있다.

## 상한 심령과 찬양



박윤진 전도사

시편 51편에 등장하는 ‘상한 심령’을 흔히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의 반성 또는 후회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상한 심령이란 인간의 축 처진 심리상 태나 슬픈 마음, 후회와 반성 따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상한 심령은 인간쪽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상한 심령이란 언약이 언약과 관계된 인물들에게 준 상처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약, 즉 영이신 말씀이 육으로 표상될 때, 육이 겪게 되는 육됨 자체에서 오는 한계상황을 의미합니다. 언약이 기파하고 거부해야 마땅한 죄이나, 언약의 강권으로 인해 거룩을 드러나야 하는 도구로써 사용받는 인격체가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으며, 많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위인 정도로 이해될 수 있을 지 모릅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율법상 완벽한 인물이 되길 소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왕답게 행동하고 왕답게 거룩한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쌓아 올린 거룩의 흐름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약의 상대방으로 낙점된 이

상한 심령은 다윗언약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하는 입장에 서고 만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다윗언약을 흘로 진행시키고 계신 여호와가 왕이심을 자신의 육으로 드러낼 수 밖에 없도록 여호와께 붙잡힌 바 된 것을 그대로 쏟아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간음이라는 행위 뿐만아

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악의 덩어리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죄는 이미 자신의 모태를 물들이고 있었으며, 자신은 그 죄악된 모태를 빌려온 죄인일 뿐입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도 항상 주 앞에서는 죄일 수 밖에 없으며,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판단하시든지 그것은 항상 의롭고 온전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언약(말씀, 영)이 다윗 자신이 살아있음 자체가 죄임을 자신의 육과 대조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한 심령을 단순하게 인간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언약이 왜 흙과 같은 존재인 죄인의 심리상태를 주목해야 합니까? 그가 왕이던 황제이던 그 누구이던 간에, 그가 아무리 철저한 자기반성을 시도하고 철저하게 깨우쳤다 하더라도 언약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언약의 상대는 오직 언약에 의해서만 정해지며, 그렇게 언약에게 지목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이란 언약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이렇게 이해할 때, 즉, 영이신 말씀이 육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는 것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심령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육이 그 몸뚱아리로 어려울 수 밖에 없도록 여호와께 붙잡힌 바 된 것을 그대로 쏟아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신이 발견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거룩만을 고집하시면서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시는 장소가 교회이며, 그 교회 안에서 제물이 되어 제사장에게 죽은 자로 난도질 당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의 찬양이란 바로 이 때,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그저 버려져야 하는 것이 백만번, 천만번 마땅함에

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귀한 보혈의 피를 아낌없이 우리 머리 위로 쏟아붓고 계신 것이 날마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삶을 모두 완불하시고 흘로 세상의 모든 저주와 고난을 짊어지고 계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온 몸으로 받아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날마다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그대로 성도에게 적용하고 계신

것이 눈 앞에 똑똑히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밝히 눈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때, 나오는 비명소리, 감사의 통곡소리, 예수 십자가만 영광받아 마땅하다는 성령의 울림이 성도 안에 메아리치는 것

이 바로 찬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성도에게 적용될 때마다, 상한 심령과 찬양은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다윗이 찬양했던 모습 역시 언약이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는 것을 목격한 것에 관한 기쁨이 다윗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이지, 다윗이라는 인간의 흥겨움에 초점을 맞추면 안됩니다. 왕이라는 신분과 속살이 보이는 광경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로잡힌 자와 그 언약이 스스로 적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기쁨은 너무도 잘 어울립니다. 그가 왕이건 거자이건 언약은 인간의 정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인간 역시 자신의 모습에는 관심을 둘 편이 못됩니다. 속살이 보이는 것조차 모르고 춤을 추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한 심령이던, 찬양이던 그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인간적인 흥겨움과 왕이라는 체면과의 무게갈이로 판단한다면 그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다윗은 이런 인간을 저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언약이 투사된 사람 이니까요.

이렇듯 상한 심령과 찬양은 모두 언약 중심입니다. 인간의 감정표출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언약에 의해 육을 알게 된 상한 심령이 자신의 한계를 뚫고 외부에서 들어오신 복음의 능력에 매달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이라고 할 때, 인간 쪽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연습하고 노력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찬양이라고 부른 것들과 소위 CCM이라는 하는 것들을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애절하게 전달하고 있는 메세지(가사)를 단 몇 분만 투자해서 살펴보시면, 과연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가 버립받고 부인되는’ 그런 상한 심령과 그

것을 흘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의심이 드실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시는 주님,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 나를 부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참 유용한 좋은 하나님을 염불하듯이 읊조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곧 나를 찬양하는 것이지요. 결코 나 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담보하기 위해, 각종 문화권의 예배형식을 끌고들어서, 열린예배, 영성예배, 침묵예배 등으로 가장한 거짓예배와 클래식, 팝, 국악 등 각종 음악으로 치장해 서 찬양이라고 강제로 이름붙여진 거짓

찬양 사이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유일한 예배인 십자가 예배를 묵묵히 드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그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혀 모든 영광을 어린 양께 올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글쓴이: 박윤진

## # 찬양 한 모금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불드신 주 예수를 보네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소진영

##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 CGN, 서부경남 미자립교회 위한 무료 영화 상영회 개최

‘무명의 복음 릴레이’ 캠페인 통해  
농어촌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 희망과 위로 전해

CGNI이 최근 진주 롯데시네마에서 서부경남지역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영화 상영회를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부경남지역 미자립교회 18개 교회에서 183명이 참석, 영화 <무명(無名)>을 관람했다.

이번 상영회는 CGNI의 ‘무명의 복음 릴레이’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리산선교동지회와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무명의 복음 릴레이’ 캠페인은 전국의 미자립교회가 선교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프로젝트다.

행사는 친송과 기도, 영화 및 서부경남지역 소개로 시작되었으며, 자리산선교동지회 이기성 회장(진주초원교회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이기성 회장은 “서부경남지역은 현재 국내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며 “7년 전 같은 장소에서 서서평 영화를 관람했을 때 40개 교회 360여명이 참석했지만, 지금은 많은 농어촌 교회가 사라지고 고령화가 심화된 상황이다. CGNI이 진주까지 내려와 상영회를 열어준 것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CGN 함태경 경영본부장도 축사를 통해 “영화



CGNI이 최근 진주 롯데시네마에서 서부경남지역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영화 상영회를 진행했다 CGNI

<무명(無名)>은 한일 양국의 역사적 연대를 넘어, 선교의 가교가 되는 중요한 콘텐츠”라며 “오늘 상영회가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위로와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 상영 중, 농어촌 지역의 목회자들 사이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특히 영화 속에서 오다 나라지 선교사가 “일본국적, 조선국적은 과거의 역사가 만든 경계선일 뿐, 우리는 모두 전국 국적을 가진 존재”라고 외치는 장면에서는 참석자들이 이 애멘을 외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석주 자리산선교동지회 초대회장(남사교회 은퇴목사)은 영화를 본 후 “일본인 선교사와 초

창기 지역 목회자들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었다”며 “40년 전, 서울의 큰 교회 목회를 포기하고 지리산으로 내려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선교사들의 희생정신 덕분에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서부경남 지역에도 다시 한 번 부흥의 열기가 차오르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남사교회 김영범 목사도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아이들이 세속적인 비전을 쫓는 이 시대에, 이 영화가 다음 세대가 새로운 소명과 선교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다”며 “더 많은 지역 교회들이 영화 <무명(無名)>을 관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지동 기자

## 한동대, 미네르바대학과 협력해 국제 AI 영화제서 성과

‘AI 문화예술 프로젝트’ 수업,  
발리AI영화제 공식 선정작 배출...  
혁신적 교육 모델 입증



을 직접 제작하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수업을 담당하는 심규진 교수는 윤성민(19학번,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과 이로운(22학번,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과 함께 ‘The Secret of behind K-Gimbap(한국 김밥의 비밀)’이라는 작품을 제작, 발리AI영화제(AI FILM AWARDS BALI)에 출품했다.

이 작품은 심 교수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두 학생이 다양한 AI 툴의 프로그래밍 기법을 활용해 영상을 완성한 결과, 발리AI영화제 공식 선정작에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발리AI영화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평가하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영화제로, 이번 선정은 AI로 제작된 콘텐츠가 예술적 완성도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심규진 교수는 “미네르바식 교육 방식을 적용하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공모전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며, 한동대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명문 글로벌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동대는 이번 성과를 통해 혁신적 교육 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했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지동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TV사역예배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25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 생방송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산정현강단(김관선)(980회) 30 TV강단 세한(주진)	10 선교는 지금(53회) 다애교회 이순근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지훈 목사(대구법어교회) 30 생명의 말씀-김현준 목사(동안교회)	20 할링스토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윤길중 목사(영등포교회) 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0 생명의 암시 사산경성결(김형배) 30 한소망 말씀(최봉규)(143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954회)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권오규 목사(계산제일교회) 50 생명의 말씀-김원태 목사(수지기쁨의교회)	10 조정민 목사의 딥딥 20 사랑의 메시지 수원순복음교회 이요한 목사 50 비전설교 대한교회 윤영 목사	30 휴먼네컷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482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66회)	00 새중앙교회 주일예배실황 황덕영 목사
8:00	20 월드풀우먼	20 신의 2수 30 체인지 더 월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	00 하나님의 음성(75회) 20 CBS 성서학당 (김홍구)(4380회) 민수기 8강	00 북은강당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30 말씀의 창 순복음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9:00	1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30 행복한 쉼터 아펠로이교회 임동현 목사	00 [말씀] 한기체 목사(중앙성결교회)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신소2)	10 새롭게하소서(11028회) 김강 대표	00 글로벌 신앙토크쇼 웃츠업(36회) 현금 낼 때마다 생각이 많아져요 4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34회)
10:00	00 미리를 Moment 지금 이 순간 1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20 무빙 인 그레이스 50 다음세대 돌봄, 한국교회가 한다	00 2025 다니엘 기도회	20 크리스천 슈퍼맘 50 너답게-회복프로젝트	00 CBS NEWS 10 20 잘 믿고 잘 사는 법(309회) 40 목사님 궁금해요(129회)	00 성경 속 전쟁사(16회) 사사사대 최후의 내전 : 베나민의 몰락 30 성지가 좋다(503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기다 4부
11:00	00 7000미라클 - 예수사랑여기에 50 바이올 프로젝트	00 사랑의 메시지 전주완산교회 유영근 목사 30 사랑의 메시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1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50 예수동행일기	00 올포원(682회)	00 소문난 성경교실(577회) 오태현 교수 세 번째 15강 박물관에서 말씀을 발굴하다 : 리암셋 2세 미이라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00회) 50 말씀의 창 포항동부교회 김영길 목사
12:00	00 CTS 뉴스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김종원 목사(경산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30 행복한 쉼터 316교회 박용배 목사	10 바이올 필름 <누가복음> 2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00 TV강단 오병이어(권영구) 30 오직예수 (이영훈)(913회)	20 북은강당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50 비전메시지 바른교회 조정현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김성곤 목사(동성한교회) 30 [CTS 30년 믿음의 명성] 내 영혼의 찬양	00 사랑의 메시지 안양생명나루교회 손명숙 목사 3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암송특강(나침반) 시즌2	2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24회)	30 강연소 통(34회) 나는 느린 사람입니다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지금, 선교해YOU	0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최주원 목사(안양제일교회)	00 말씀의 힘 유언등(정준경) 30 새롭게하소서(1135회) 김기중 목사	20 믿음의 리액션(3회) 경기도 평택
15:00	40 7000미라클 - 예수사랑여기에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꿈	00 [특집] 다큐멘터리] 땅 끝의 종인들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4378회) 미태복음 3강	00 수영로교회 새물결 새비람 NEW WAVE 이규현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00 행복한 쉼터 소생교회 강복렬 목사 30 행복한 쉼터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	00 하윤주 목사의 오하복을 강해 40 바이올 필름 <누가복음> 50 [말씀] 김영희 목사(별살롬교회)	10 맨투맨 청자(6회)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5회) 50 셋이면 넘어지지 않아 스페셜(6회)	00 이석 목사의 일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31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생명의 말씀-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신의 2수 10 김대성 목사와 함께하는 기도수련대 대형전 부흥회 40 여주봉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933회) 50 영훈의 암시 수원제일(박성영)	00 말씀의 창 한빛교회 김진오 목사 30 말씀의 창 순복음서울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김대성 목사(소명중앙교회) 30 TV전양예배	10 비전설교 대전타평교회 한상현 목사 40 깊은 울림 미카스 워십	10 2025 회복축제 (온전) 50 2025 KOSTA WORLD IN IRVINE	00 TV강단 성남빛나는(서학복) 30 산위의마을 예배(김영준)(262회)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30 말씀의 창 웰品德교회 임병재 목사
19:00	20 미라는 Moment 지금 이 순간 30 다니엘기도회	0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50 2025 KOSTA WORLD IN IRVINE	20 만나다(26회) 30 TV강단 예장백석	00 비전메시지 광주성안교회 김시온 목사 30 스페셜 오직주님 명성의 위십(400회) 김하나 목사
20: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복상 3분 미라클 30 생명의 말씀-장찬영 목사(강남중앙교회)	00 2025 다니엘 기도회 생방송	00 너답게-회복프로젝트 20 THE NEW 하늘빛향기	00 생명의 시대(14회) 50 CBS 교회소식(1023회)	10 비전메시지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 40 북은강단 새은혜교회 황현택 목사
21:00	00 원더풀우먼 50 CTS 뉴스	00 2025 다니엘 기도회 생방송	00 갈보리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홍구)(4380회) 민수기 8강 50 성경풀팁 이영이 궁금하다(71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40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00 GOODTV 뉴스 20 GOODTV 시네마 미라클 퍼퓸 헤븐 1부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00 CBS NEWS 10 2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2회)	00 CBS 크리스천 월드뉴스(159회) 20 소문난 성경교실(574회) 오태현 교수 세 번째 12강 박물관에서 말씀을 말굽하다 : 실로암 석비 50 리비아즈 위심
23:00	10 구자역 목사의 트롯찬양교실 40 오마이갓생	20 아버지 나의 아버지	10 R.T. 캔달의 말씀과 성령 40 생명의 삶 50 바이올 필름 <누가복음>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38회) 30 하나님의 음성(76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66회)	00 믿음의 리액션(3회) 경기도 평택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깊은 울림 현성 워십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THE NEW 하늘빛향기	10 새롭게하소서(11028회) 김강 대표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00 강연소 통(34회) 나는 느린 사람입니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00	00 무빙 인 그레이스 김상인 목사 30 이영훈목사의 힐링스토리 40 CTS 30년 믿음의 영작 CTS 특집다큐 여전도회 120년사 특집 다큐 2부 - 어머니 세계를 품다	10 조용기 목사, 명설교	0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40 [말씀] 도지원 목사(예수비전교회)	0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25회) 40 말씀의 능력(전태식)(555회)	00 고풍적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록(27회) 복음과 세상 종교 30 성지가 좋다(503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기다 4부
2:00	30 백세특강 시즌3 박호근 목사 4강	10 매일 주와 함께	20 [말씀] 이주연 목사(신마루교회)	30 TV강단 강남중앙침례(최병락)	00 THE 궁금(26회) 천사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14회)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요한계시록 8강 송태근 목사 50 위대한 별걸음	1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 3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0 올포원(681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심 김하나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박종순 목사 30 내 영혼의 찬양	00 조건회 목사의 찬양과 나눔 10 생명의식 미디리큐티 2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	00 CBS 성서학당 (배요한)(4379회)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 15강 50 CBS 교회소식(1023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20회) 김선도 목사 30 성지가 좋다(503회)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extenxion innovation

SK  
이노베이션

[ 에너지의 무한공식 ]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 시너지에 시너지를 더하면

이노베이션

시대가 원하는 에너지의  
답을 찾습니다

SK 이노베이션